Información 한Gua 한 과 정 보

2020년 7월 31일 (6.11) 금요일

한과정보

코로나 19 현황

총확진	日확진	사망
48826	1221	1867

기준환율 : ₩ 1,188.60 송금시 : ₩ 1,177.00 팔때 : Q 7.56 살때: Q 7.87

대사관 : 2382-4051~55 이메일 : embcor.gt@mofa.go.kr 대사관긴급전화 : 3368-9333 한인회 : 2445-6461

문제해결 요원한 가짜 코로나 검사지 사건

서은주 원장의 계속된 진술 번복으로 과테말라 한인사회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은주 원장의 진실된 사과와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 및 배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종결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서은주 원장이 가짜 PCR 검사로 피해를 입은 한인동포가 205명이라고 밝혔으나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서은주 원장이 어느 피해자에게 환불과 배상을 했는지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은주 원장은 사건 초기 가짜 검사지를 만든적이 없으며, Centro Medico에 검사를 의뢰 했고 Henry Jose Figueroa Ramiez의 회사인 SERPROMSA가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2번의 사과문을 발표했다가 피해자들과 교민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비로소 자신이 코로나19 검사지를 현지인 의사인 Carlos Monzon과 Marlon Reyes와 함께 위조했다고 자백했었다.

그러나 서원장은 17일 자신의 범죄행위를 고백한 사과문을 공개한지 몇 시간만에 삭제하였고, 몇일 후에는 배형근 목사를 통해 자신도 현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17일 사과문은 대사관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해 교민 사회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6페이지에서 계속>

월~금 정상발행
토요일에도 한과정보 전자판



AISA
마스크 랍 빠
제작 판매 합니다
3a. ave A 3-72 sec. A-5 san cristobal, Bodega 1 Z8 mixco
Tel. 3082-7035



그린 . 해피 마트

5525-1200, 2433-9651 /1 calle 32-51 Z.7 col. Toledo
4025-2266, 5893-8565, 2334-7344, 2362-3475
Bulevar Liberacion 4-11 Z.9 Local #1, Plaza Asadis

7월 26일 미국냉동 입하

이천쌀 및 잡곡류 및
각종 신선한 냉동식품 가득!

7월 15일 한국냉동 입하

****** 영업시간 안내 ******
평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7시 30분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만든 **<<김밥 주문 판매>>**
각종 학교행사 및 여행시 필요한
소량의 주문도 받습니다.

송금합니다. (단, 한국계좌로 송금하시고 과테말라에서 결재를 받는 방식)

그 린 서 점

※ 필요한 어린이 문제집이나 책이
있으시면 주문해 주세요.

샤인코리아

한국 슈퍼 마켓

교민과 함께하며 신선한 제품과 저렴한 금액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 오뚜기 HITEJINRO paldo

7월 29일
한국 냉동 입하

비비고 즉석국, 컵밥, 혜화당 만두, 취영루 만두
라면류, 과자류, 음료, 주류, 각종 생활용품
여주즙, 손소독 티슈 및 소독제
파스퇴르 우유, 고려은단 비타민 C
기타 일반 제품 및 신제품 다량 입하

Q.200이상 구매 사은품 - 손소독 티슈증정

Tel : 2296-6152 / 2296-6153 / 2439-7176 / 2 Calle 34-15 Zona 7
영업시간 : 오전 8시30분 ~ 오후 8시 / 시내 전지역 배달 / 신용카드 사용 가능

*** 한국 음식 포장 및 배달 ***

활어회(+매운탕재료)
오골계 백숙(2시간전)
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주 물 럭
LA 갈비
삼 겹 살
갈 비 탕
우거지갈비탕

불고기덮밥
제육덮밥
육 계 장

돈까스
떡볶이
김 밥

포장 및 배달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배달(슈퍼+빵집+식당)은 합쳐서 Q.300 이상 가능※

샤인 빵집 한국 베이커리

주문 예약 전화 : 5701-4323, 2296-6152~3
한국 제과 제빵 종류는 뭐~든지 예약 전화 주세요.



고구마, 녹차, 모카, 과일생크림,
초코케익, 롤케익
아침 10시부터 갓구은 빵이 나옵니다.





자동 안면 생체 인식 제어기

안면인식과 체온 측정을 통한 자동 입·출입 제어기

저희 VELATTRI 사는 기업, 사무실, 학교 및 각 사업장에 출입하는 직원 및 방문객의 신원과 체온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입·출입을 제어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신분도용 방지와 보안강화에 도움을 드립니다.

- 기본자료등록
- 체온 이상시 경보음
- UHD 화질
- 체온측정
- 자동조명 시스템
- 쉬운 설치

$1,381.25

+502 2319 9080

과테 시내 배달개시 Q300 이상

과 테 골

- 도시락 전문 -

낮 12시부터 오후6시까지 모든메뉴배달



- ♣ 보쌈, 족발
- ♣ 김밥, 김치볶음밥
- ♣ 오리로스. 훈제
- ♣ 생삽겹
- ♣ 양념통닭
- ♣ 후라이드통닭

- 각종 찌개 ♣
- 김치 판매 ♣
- 다양한 점심메뉴 ♣
- 영양탕(매주 화요일) ♣
- 닭,오리 백숙(오전예약) ♣
- 출장 뷔페/돌잔치/회식 ♣

활 어 회

다량 입하

이사칠칠-이육삼팔 / 이칠칠오, 오삼영사-사일사오

46 calle 6-87 Z.12 Col.Montemaria 3 / 월~토 12시부터 영업

식당 "본가" 정상영업 합니다.

OPEN



전화 : 2445-6050, 3147-7921
34 AVE. 1-36 Z. 7 (NAIS 식당 건너편 위치)
본가 옆 나이스 주차장 사용가능
로데오 합동 배달서비스 이용 가능

본가
RESTAURANTE BONGA

육 류
꽃 등 심
안 창 살
LA갈비
삼 겹 살
돼지갈비
오리주물럭

안 주 류
아 구 찜
오징어볶음
골뱅이무침
김치고등어찜
김치돼지갈비찜

전 골 류
샤 브 샤 브
부 대 찌 개
동 태 전 골
불고기전골
만두버섯전골
소고기버섯전골
오삼불고기전골
어죽탕국수전골
돼지고기김치두부전골

맛있는 김치 주문받습니다

찌 개 류
된장찌개
청 국 장
육 개 장
어 죽 탕
순두부찌개
돼지김치찌개

국 수 류
칼 국 수
잔치국수
콩 국 수

덮 밥 류
제 육 덮 밥
불고기덮밥
오징어덮밥

생일 맞으신 분들
미리 연락 주시면
미역국 준비해 드립니다.



과테말라 / 중남미 주요뉴스

한과정보가 파악한 사건의 전말은 서은주 원장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한인들의 코로나 검사 요청이 이어진 4월이 후, 이전부터 Laboratorio를 운영하고 싶어했던 Cluadia Valencia에 신속진단키트를 이용해 한인동포들에게 검사를 하자고 제의했고 이에 응한 Cluadia Valencia와 그의 남편 Henry Jose Figueroa Ramirez를 이용해 한인동포 검사의뢰자들에게 출장 검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검사를 시작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SERPROMSA사는 신속진단키트를 이용한 검사외에 PCR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들에게 PCR검사를 해 준다고 말해 왔던 Henry Jose Figueroa Ramirez는 현재는 PCR검사를 했거나 한다고 말한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동포들의 코로나19 검사 요구가 이어지며 일부 한인들이 구체적으로 PCR검사를 서은주 원장에게 의뢰하였고 출장 검사를 나갔던 Henry Jose Figueroa Ramirez가 한인 동포들에게 PCR검사를 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하자,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지를 요청하는 한인들도 덩달아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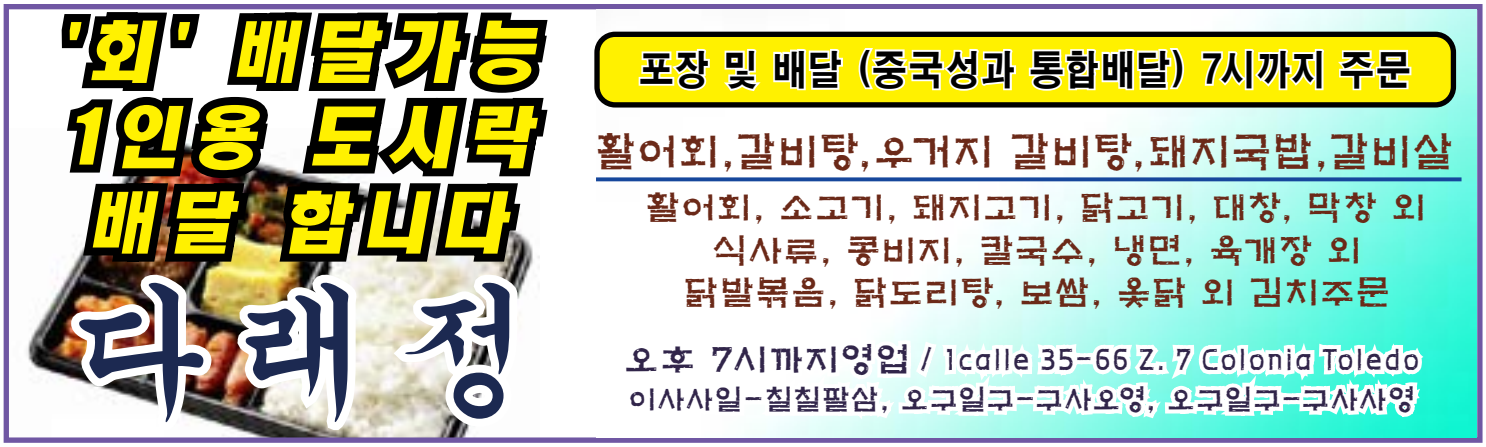
이에 서은주 원장과 Henry Jose Figueroa Ramirez 및 Cluadia Valencia는 PCR검사지를 위조하기로 논의 했으며, 논의 후 서은주 원장은 Centro Medico에서 코로나 PCR 검사를 의뢰했던 한인동포로부터 검사결과 확인차 받아 논 Centro Medico 코로나 검사지 원본을 이용해 환자 이름과 의사 이름 등을 수정한 가짜 검사지를 만들어 검사지를 요청한 한인동포들 중 일부에게만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 PCR 검사지의 이상함을 느낀 김정석 영사가 사실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결국에는 지난 17일 자신이 범죄를 모의했다고 시인하는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까지 대사관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까지 이르렀고, 이에 참지 못한 한인동포들의 제보에 의해 한국의 신문과 방송사에 "한인 의사가 뿌린 '가짜 코로나 결과지'…과테말라 '발칵'"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이 보도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서은주 원장은 지난 17일 사과문에서 검사비 환불을 약속하며,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3개월간 돌려주겠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검사지 위조사건으로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한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서은주 원장의 계좌를 확인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Henry로부터 받은 돈 약 20만 께짤이 여러차례에 걸쳐 서은주 원장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한과정보는 이와 관련해 서은주 원장에게 "피해자들에게 받은 검사비를 갖고 있냐"고 물었으나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들게 환불하기 위해 대출을 이미 받았다고 답하면서도 한 번에 환불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출 금액이 크기 때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이어갔다.

서은주 원장은 29일 오전 한과정보와 나눈 카톡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고... 그분들(피해자)의 마음을 완전히 풀을때 까지 사과 하고 또 사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으나 자세한 사건의 내막을 밝혀달라는 한과정보의 요구에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



Tel. 2479-1394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젯트 여행사

Instituto Guatemalteco de Turismo 관광청 승인 여행사

INGUAT

7월 과 8월 특별기 운행 (한국방문)



- 유나이티드항공 (UNITED AIRLIES)
- 7월 출발일 - 23.24.30.31
- 8월 출발일 - 6.7.13.14
- 과테출발 4:00 PM- L.A도착 18:10 PM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연결 -> L.A출발
- 티켓은 예약즉시 구매하셔야 합니다

Jet Express Travel Agency & Tours

13calle. 3-40 Local 41. 2do. Nivel. Edificio Atlantis Zona 10
E-mail : taeshim62@hotmail.com jetexpressgua@yahoo.com
Tel : (502) 2385-4646 직통전화 : (502) 2383-4324 HP : (502) 5867-5867

박 상 민
healthcare clinic

가정의학과
박 상 민 헬스케어 클리닉



응급 진료
왕진/특진



페렴 예방접종 (5년보호, 10년보호)
MMR 접종, 홍역, 볼거리, 풍진

면역 증강제
비타민 B,C,D, 아미노산 (14종류)

▶진료 시간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12시 ~ 2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점심시간 없이)

▶병원 전화 : 2439-8225 ※ 응급전화 : 4004-6267 ※

▶Waze / Google map / Uber : 박상민 클리닉으로 찾아주세요.

※ 카드 결제 가능 ※

마하다스 상가 바디프렌드 매장 내 안쪽/8calle 28-00 Z.11 Plaza Las Majadas #24

The nail 손.발 케어 및 내성발톱 관리 전문
(예약 : 삼공이구 - 삼육팔사)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임시 휴업 합니다.



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사관은 "현재로서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과정보 : 박성진

29일 확진자 1,221명 확진자 비율 23.7%

29일 오전 12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1,221명 늘어나 총 확진자 수가 48,826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9일 31명 늘어나 3월부터 지금까지 사망자는 1,866명을 기록하며 사망률은 3.8%로 나타났다.

완치자는 436명 늘어나 하루전인 994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총 완치자는 35,629명이며, 29일 현재 코로나19 감염자 숫자는 11,330명 수준이다.

29일 코로나19 검사수는 처음으로 5천건을 넘어선 5,151건(152,584건)총 검사수는 을 기록했으며, 검사수 대비 확진자 비율은 23.7%이다.

과테말라시는 29일 확진자는 354명으로 누적 확진자 16,209명이며, 일일 검사수는 1,621건으로 누적 검사수 48,640건이다.

과테말라시의 검사수 대비 확진자 비율은 21.83%를 기록했다.

비야 누에바시 누적 확진자 수 3,874명, 누적 검사수 10,009건
믹스코시 누적 확진자 수 4,500명, 누적 검사수 13,648건
팔링시 누적 확진자 수 318명, 누적 검사수 722건
에스뀐뜰라 누적 확진자 수 1,626명, 누적 검사수 2,813건
산호세 피눌라 누적 확진자 수 578명, 누적 검사수 1,892건
30일 21시 21분까지 한인 확진자는 108명(중국동포 4명 포함)이다.

한과정보 : 박성진

Aurora 국제공항 3~4주 후 운영재개?

Francis Argueta 민간항공국(DGAC)국장은 약 3~4주 후 Aurora 국제공항이 재 개항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DGAC는 이전 발표에서 8월 15일 공항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공항재개여부가 달라지며, 현재로는 9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공항운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rancis Argueta 국장은 공항 재개방 시기에 대해 "(공항 재개방은) 보건당국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말할 수 없지만, 앞서 발표한 날짜는 가능성이 있는 대략적인 시기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제공항의 재 개방으로 해외발 항공기들의 운항이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30년 요리 경험을 바탕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RESTAURANTE HAN GUK GWAN

고기 전문 식당

한 국 관

Z.7, Z.11 배달 개시

정상영업합니다.



▶"냉면" 전문식당 그 외 다양한 메뉴. 연중무휴

▶넉넉한 주차공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콜서비스

전화번호 : 이사삼구-오구이칠, 사육이영-이칠오구

2a calle 33-14 Z.7 calz mateo flores

샬롬여행사
(SHALOM TOUR)
32 Ave 1-28 Z.7 Utatlan(농원 2층 위치)
2439-7650, 2439-7706, 5990-7197
shalomlim@hotmail.com, shalomlimgua@hanmail.net

7월, 8월 한국행
UNITED항공 특별기 운항
과테 - 엘에이 직항 운항편
7월 23, 24, 30, 31일
8월 6, 7, 13, 14일

시작되면, 해외 감염자 유입의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해외국가들은 여전히 공항 재개 시기를 미루고 있기도 하다.

Argueta 국장은 공항폐쇄 이후 Aurora 공항은 인도적인 차원의 물품과 인력을 위한 비행기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행기당 정원의 25%의 인원이나 물품만을 싣고 운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테말라 여행사협회의 Paul Hagen는 Asíes(La Asociación de Investigación y Estudios Sociales)가 19개 여행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결과, 인도적 승객을 위한 비행기가 운항되고 있으나 판데믹 이전에 비하면 0.1%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과테말라 항공협회(Agla)의 Motty Rodas이사도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98~99%의 항공기가 운항을 멈춘상태이며,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인도적 승객들을 위한 항공기 만 운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Motty Rodas 이사는 Aurora 국제공항의 재개항과 관련한 Argueta 국장의 발언에 대해 "코로나 비상대책위(Copervid)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재개항 일정을 발표하지 않아 언제 공항이 문을 열지 알 순 없는 상태지만, 정부가 공항 재개시기를 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공항 재개항이)언제가 될 지 알 수 없으나 항공사들이 운항전 사전 예약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개 시점을 알 필요가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공항 재개시점이 발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항운영이 재개되고 승객들이 비행기를 탑승한 채 이동해도 기내에 공급되는 공기는 100% 정화된 공기이며, 지금까지 기내 감염 사례는 0%라고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승객들이 불안해 하는 점을 알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을 판단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이전 Aurora 공항을 이용하던 항공기는 매일 약 44편에 달했으나 현재는 많아야 하루 1편에 그치며, 이마저도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행기라고 Rodas 이사는 밝혔다.

현재 승객들을 위한 국내 항공서비스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농약살포, 직원 교육, 환자 이송 등의 필수 항공기만 운영되고 있다.

Diego Díaz 과테말라 여행협회(Camtur) 대표는 현재 과테말라 국민들의 외국으로 가려면 멕시코의 Tapachula 공항을 경유해 외국으로 갈 수 있어 일부 여행사는 멕시코 Tapachula 공항까지의 육로 이동비용을 포함해 외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객 운송은 코로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줄어든 상태이나, 화물 운송은 코로나 이전의 물동량을 이미 회복했으며, 더 많아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테말라 물류협회의 Jorge Gómez 회장은 지난 5월 부터 항공화물이 늘어나며 코로나 이전수준을 거의 회복했으며, 수출의 경우도 코로나 이전의 95%까지, 수입물량도 6월 들어 코로나 이전의 80~85%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Prensa Libre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과테말라 한인 교회 연합

다메섹선교교회



담임목사 김기택

ZOOM을 통한 LIVE영상예배.
금요성경공부 : 오후 8시
주일 낮 예배 : 오전 10시40분
ZOOM회의(예배) 번호
⇒ 911 918 9999
비밀번호 : 046322
21 Calle 13-15 Z.11 Col.Mariscal
전화: 2473-3968, 5511-6525

평강교회



담임목사 변홍근

주일낮 1부 예배 : 오전 9시
주일낮 2부 예배 : 오전 11시
주일 아동 예배 :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수요기도회: 오후 8 시
금요 중보 기도회 : 오후 8 시
주소: 11ave.29-46 Z.12 El Bosque
전화 : 2476-1313 5202-553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과테말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이정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인터넷 동영상
예배 사이트 →

주소 : 17Ave 28-92 Zona 12
교회 : 2293-2100

대한예수교장로회 과테말라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상돈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인터넷 동영상
예배 사이트 →

주소: 37ave. 3-36 Z.7 Col.el rodeo
교회: 2433-4533/담임목사:4768-5454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병성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인터넷 동영상
예배 사이트 →

주소 : 0 Ave. 9-41 Z.9
전화 : 2362-8565, 5176-3677

예배동영상 시청을 QR 코드로... QR사용법

휴대폰의 카메라를 QR 코드에 갖다 댄다
카메라 화면에 메세지가 보이면 클릭한다
만약 카메라 화면에 메세지가 보이지 않으면
QR코드스캔앱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QR 코드스캔앱을 실행해 화면에 갖다 댄 후
메세지가 나오면 클릭!

대한예수교장로회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박필종

BIBLE TIME과 함께
성경 읽고, 말씀 묵상

주일예배 : 주일오전 10시30분(방송예배)
새벽예배 : 월-토 6:00(방송예배)
주소 : 18Calle 5-92 Col.MARISCAL Z.11
교회 : 2474-4551 / 목사 : 5705-6646

예배 안내(유투브에서 검색하세요.)

주일예배 : 방송시간 오전 10:30
희망찬 새벽예배(월-토) : 방송시간 6:00

과테말라
선한목자교회

더욱 힘써 예배 합시다!!

사 설

전월세 '대변혁', 치밀한 후속조처로 연착륙시켜야 (한겨레신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전월세 제도가 1981년 법 제정 이후 40년 만에 대변혁을 맞으며, 750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호장치가 획기적으로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면밀하고 신속한 후속조처로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을 막고, 전월세 시장을 신속히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을 안하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제도 도입 전에 보증금을 서둘러 올리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급박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처다. 새 제도를 도입하면 초기에 혼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고 전세시장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필요한 후속조처를 서둘러야 한다. 내년 6월쯤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신고관리시스템 구축도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 또 기존 계약에 대한 적용과, '실거주'에 국한한 집주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도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여당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7·10 대책'을 뒷받침하는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8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 역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여당은 법안 처리 과정의 논란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래통합당은 물론 법안 처리에 찬성한 정의당과 여당 일각에서도 일방적인 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하지만, 거대 여당의 '독주'로 비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남은 법안 처리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여당이 아무리 협치를 하려 해도 야당이 외면하면 헛수고다.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고 외치기 앞서, 시급한 민생 입법을 두고 '발목잡기식'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임대차 3법에 반대하고,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집값 안정을 바라는 민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명분 없는 장외투쟁도 국민의 실망만 부를 것이다.

'경찰 중립' 빠진 검경 개혁… 정권 위한 개편 안 된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당정청 협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당정청은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 공개된 안을 보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정권 강화를 염두에 둔 개편인지 우려를 낳는 대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지만 견제장치는 미흡하다. 경찰은 수사종결권의 상당 부분을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쥐게 돼 권한이 이전보다 훨씬 막강해진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하지만 핵심은 방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이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느냐다. 당정청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전국의 수사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가수사본부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보장하는 장치는 없다.

반면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대상이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로 제한되며 특히 공직자 뇌물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 뇌물액수 3000만 원 이상일 때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급 이상을 수사 대상으로 정해놓은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4급 공무원 비리에 한해서만 수사하라는 셈이다.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강단 있게 해나갈 수 있을지,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온 권력형 비리와 금융·조세 등 전문 분야 수사 역량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우려된다.

게다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마저 관철되면 집권세력이 국가 수사기관 모두를 확실히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선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2년 임기제와 더불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임명 방식을 여야 합의 추천 등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라 이 프

일 줄었지만 놀 줄 모르는 한국인 "잠만 늘었다"

한국인이 일하거나 학습하는 데 쓰는 시간은 줄어든 반면 잠을 자거나 외모 관리 등을 하는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제 도입에도 여가는 좀처럼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이 일이나 학습, 가사노동 등 의무적인 활동에 사용한 시간(의무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38분으로 5년 전보다 19분 줄었다. 의무적인 활동 중에서는 학습 시간(54분)이 5년 전보다 13분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초·중·고교 및 대학(원)교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습시간이 5년 전보다 25~50분 감소했다.

15세 이상 국민 중 평일에 일을 한 사람의 비율은 60.6%였다. 이들이 지난해 하루 평균 일한 시간은 6시간41분으로 5년 전보다 11분 감소했다.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부터 적용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도가 전면 도입되지 않아 근로시간 감소 폭이 예상보다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여가 시간은 늘지 않았다. 지난해 10세 이상 국민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4시간47분으로 5년 전보다 2분 줄었다. 이와 관련해 강유경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의무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수면, 식사, 외모 관리 등에 쓰는 필수시간과 교제, 미디어 이용, 취미활동 등 여가시간으로 나눴는데, (5년 사이) 의무시간에서 줄어든 대부분 시간이 필수시간 쪽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여가 대부분은 미디어 이용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모든 세대가 여가 시간에 독서나 방송 시청, 인터넷 검색 등 미디어 이용을 가장 많이 한다고 응답했다. 10대와 20대는 게임 및 놀이를, 30대와 40대는 교제 활동을, 50대 이상은 스포츠 및 레포츠를 미디어 이용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이나 식사, 외모 관리 등 필수적인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34분으로 5년 전보다 20분 늘었다. 지난해 한국인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12분으로 5년 전보다 13분 증가했다. 외모 관리 등 개인 유지 시간도 1시간27분으로 같은 기간 9분 늘었다.

바이어스작업

♣ BIAS(랍빠감,니트/우븐) 다대 및 바이어스 요꼬 커팅
♣ 스파게티 작업합니다.
♣ 랍빠 및 애리가다, 굿찌가다, 후다등 "패턴포머 전문제작"
♣ 각종 ATTACHMENT 인타, 오바, 삼봉, 샤링

랍빠전문

니트 및 우븐 핀탁랍빠

품질 보증, 납기 엄수

담당 : 박상봉 5526-0630

Fabrica empresarial montaña
km 18.5 carretera san juan sac
Aldea naranjito Z.6 de mixco
A-41-68 bodega no.2

남녀 간 가사노동 격차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여자의 가사노동시간이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일에 가사노동을 한다고 응답한 남자는 60.8%로 5년 전보다 8.4% 포인트 늘었다. 남자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48분으로 2014년보다 9분 늘었다. 여자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5년 전보다 12분 줄어든 3시간10분이다.

굶어서 살 빼면 생기는 일 6

살을 빼려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 종종 굶어가면서 살을 빼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먹지 않는 다이어트는 일시적으로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양소의 결핍을 만들어 좋지 않은 신체 변화를 초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먹지 않는 다이어트, 왜 안 좋을까?

1. 식욕 상승

먹는 양이 부족해 항상 배가 고픈 상태가 유지되면 음식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극단적 다이어트로 인해 감소하면 그 상호작용으로 식욕을 증진하는 그렐린의 분비가 증가하므로 식욕이 점점 상승한다.

2. 기초대사량 감소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체중은 줄어들지만 매일 1,000Kcal 미만으로 음식을 제한하면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식욕 감소로 인해 음식 섭취가 줄어든 노인들이 신진대사 저하로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요요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근육 소실 및 피부 탄력 저하
굶는 다이어트의 최대 이점은 빠른 체중 감소다. 하지만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근육과 지방 중 어떠한 것이 빠지는가이다. 꾸준히 굶다 보면 신체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없어 지방이나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방은 최후의 수단이므로 근육이 소실되어 피부 탄력이 저하될 수 있다.

4. 갑상선 기능 저하
칼로리를 급격하게 제한하다 보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감소할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추위를 많이 느끼고 있다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아졌다는 신호다.

5. 생식능력 감소
칼로리 섭취 또는 체지방률이 급격하게 낮아지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 성호르몬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성호르몬 분비량이 변하게 되는 첫 신호로는 무월경이 있다. 3개월 이상 생리가 없다면 반드시 의료진을 찾아야 한다.

6. 불안 및 우울증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칼로리 섭취량이 줄면 불안증이 생길 수 있다. 저칼로리식을 하는 과체중 환자들의 경우 불안 및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굶는 다이어트는 저혈압, 부종,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며 호르몬 수치의 변화로 예민해지고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500kcal 정도를 적게 먹는 것이 권장되며, 이때 감량 체중은 1주일에 0.5kg으로 이를 6개월 이상 지속하면 초기 체중과 비교해 최대 10%까지 감량할 수 있다.

음식으로 코로나 19가 전파될 수 있을까?

코로나 19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태양이 이글거리고 후덥지근한 공기로 가득한 날씨에도 마스크 착용은 물론 손 소독제는 필수품이 되었고,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누렸던 문화생활, 연휴를 이용한 해외여행, 결혼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나 지인들과 모임 등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은 먼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식문화다. 이

고 려 학 원

코로나와 교통체증에 대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최고의 선생님과 시스템으로 학생의 언어에 맞춰(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수업합니다.

1:1 수업, 소수 정원제, 화상 (온라인)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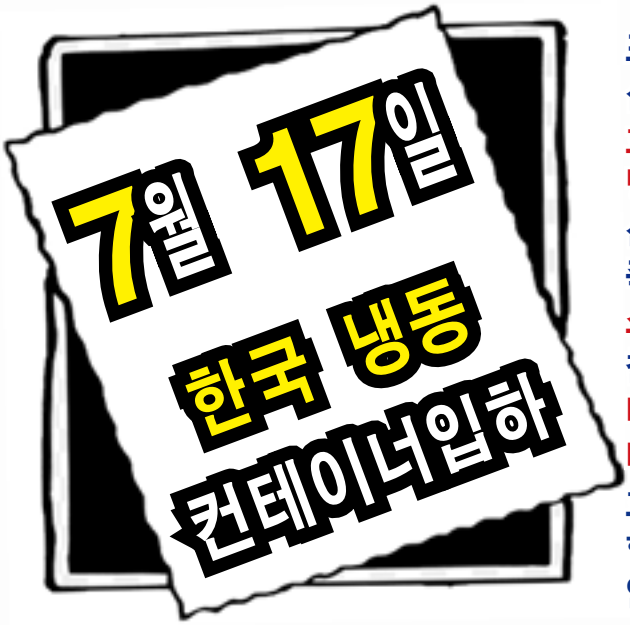
E-MAIL
danydj77@gmail.com
Cel : +52 55 6103 6757

카톡아이디
hyeyoung3635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수강과목
수 학
전학년내신, ACT, IB
SAT, SAT IIC, 대학수학
스페인어:DELE
영 어
전학년내신, ACT,
SAT, TOEFL
과 학
물리, 화학
ACT, SAT IIC

보 물 창 고





표고버섯분말. 멸치분말. 다시마 분말가루
삼립 완듀완듀빵. 치즈케익. 단팥크림빵. 모찌
호빵. 동물모양 이쇱찐빵. 우리밀치즈볼
땡글치즈 감자볼. 바삭모짜 치즈감자볼
선지해장국. 순살족발. 훈제돼지막창. 소양대창.
즉석소곱창구이.
소금구이 자반고등어. 삼치. 임연수. 열빙어. 굴비
찰순대. 매운찰순대.
비비고 순댓국. 비비고 육개장, 비비고 알탕
비비고 쇠고기장터국밥
호박꿀맛나. 백옥콘. 추억의 꽈베기
한입떡갈비. 햄버거패티. 무뼈닭발
안주야~직화곱창. 모듬곱창. 곱창전골



참닭닭갈비. 손질된 영덕 청어 과메기. 알탕용알(소포장). 명태알포. 직화육포.
얇은피 고기만두. 개성얇은피 김치만두. 개성얇은피 새우만두. 감자물만두. 고향만두.
비비고한섬만두. 비비고찰보리감자만두. 백설깻잎고추군만두. 납작군만두.
컵반 불닭마요덮밥, 컵반 철판제육덮밥, 컵반 직화볶음짜장덮밥, 컵반 김치날치알밥.
무말랭이무침. 마늘쫑무침. 간장고추. 오이지. 양념깻잎. 매실간장깻잎. 된장깻잎. 콩자반.
고들빼기. 더덕무침. 땅콩조림. 어리굴젓. 낙지젓. 오징어젓. 꼴뚜기젓. 조개젓. 새우젓



7월 행사 세일

임가네고추가루 김치용 Q150
한국내수용쵸코파이 3곽 Q100

배달 직통 번호 5318-0169 카톡 주문 가능

배달 직통 전화번호 : 2473-8255, 2473-8222, 5318-0169
Anillo Periferico 22-29 Z.11 C.C San Jorge Local 14
(컴퓨터 판매 및 수리. 한글자판 및 스티커. 단체 김 주문)

제는 식탁에 둘러앉아 마주 보며 대화하거나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음식으로 코로나 19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일까? 실제로 식사를 같이한 접촉자에서 발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코로나 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SARS-CoV-2)는 노로바이러스나 A형간염 바이러스와는 달리 위장관에 침투해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비말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음식 자체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해도 된다. 물론, 조리되지 않은 날 것의 식품이나 포장 패키지 등에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묻어 있으면 이를 손으로 만진 뒤 눈, 코, 입에 닿으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과 먹는 이 모두 손 씻기를 생활화하여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 또, 무증상자나 코로나 19 잠복기 등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이들이 있을 수 있음으로 먹기 직전의 음식은 주걱, 집게 등 도구를 이용해 소분하는 것이 좋으며,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해 식사 중 대화하는 것 역시 피하는 것이 좋겠다.

코로나 19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위생 및 식사 시간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위생 수준이 한껏 높아진 탓에 실제로 유행하는 다른 감염질환들의 전파도 눈에 띄게 급감했다. 비말 전파로 감염되는 대표적인 인플루엔자(독감)는 지난 3년에 비해 환자가 적고 유행 기간도 6~12주 정도로 짧아져 유행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정도다. 이 외에도 아데노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병(비말 전파), 수두(공기 전파), 안과감염병(접촉 전파) 모두 예년보다 급감해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장은 "수두와 안과감염병 등 감염 환자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비말뿐만 아니라 음식으로 인한 식품매개 감염병 및 식중독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같은 주에 20건 정도를 오가던 집단 발생이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최흔 교수는" 개인의 철저한 위생으로 인플루엔자, 수두, 식중독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 19도 결국 일종의 감기"라며 "감염병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물리적으로 숙주의 몸에 침입해야 하므로 사람 간 접촉을 줄이고 손 위생만 잘 지켜도 코로나 19로부터 모두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이 이른 시일 내에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 즉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일상의 경각심을 유지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버텨야 하는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인플루엔자, 수두 등 급격하게 사라진 각종 감염병처럼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 19 역시 언젠가 잊힐 감염병이 되길 바라본다.

치주질환, 치매의 원인이라고?

치주질환이 치매 발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SITE

C-SITE 과테말라 법인 채용 공고

1. 모집 부문 및 지원 자격

구 분	모집 부문	인 원	지원 자격
경력사원 (과장급 이상)	영업	1 명	▷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영어/스페인어 가능자

2. 전형 방법

• 1차 : 서류 전형 • 2차 : 면접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3. 제출 서류

• 영문 또는 한글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4. 문의처

• 담당자 : 관리부 주임 한희성 (Alejandro Han)
• e-Mail : alejandro@c-site.co.kr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Ryan T. Demmer 박사 연구팀은 평균 연령이 63 세인 8,275 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18년동안 치주질환과 치매 발병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연구 시작 시 22%는 치주질환이 없었고, 12% 가벼운 치주질환이 있었으며, 18% 심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기간 동안 참가자 중 19%가 알츠하이머 혹은 다른 형태의 치매로 발전했다.

연구 결과,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당뇨병, 흡연 등의 요인을 배제한 결과다.

연구팀은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가 신경을 따라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뇌로 침투해 치매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박테리아는 선행연구를 통해 당뇨병, 죽상경화증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mmer 박사는 "치주질환을 넘어 각종 신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치아 및 잇몸 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치과 위생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Neurology에 게재되었으며, The New York Times, MedicalXpress 등의 외신에서 보도했다.

옥수수는 '우유'랑 먹는 게 제격인 까닭

7월부터 9월은 싱싱한 옥수수를 맛볼 수 있는 옥수수 제철 기간이다. 옥수수는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분도 풍부해 여름철 간식으로 제격이다. 옥수수의 건강 효능 등에 대해 알아본다.

옥수수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식품이다. 소화가 천천히 이뤄져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 음식 섭취량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 자체에 지방이 적고 열량도 낮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수분이 많아 변비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옥수수의 씨눈에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옥수수 수염 속 성분이 몸의 부기를 빼며 혈압을 조절하기도 한다.

옥수수는 보통 삶거나 쪄서 먹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도가 떨어지고 알맹이도 딱딱해져 빨리 먹는 게 좋다. 조리한 지 3일이 지나면 냉동실에 보관해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손질하고 남은 옥수수의 수염은 깨끗이 씻어 말린 뒤 물에 끓여 차로 마신다.

옥수수를 먹을 때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과 트립토판이 든 우유와 달걀을 같이 먹으면 좋다. 옥수수에는 라이신과 트립토판이 적기 때문. 라이신은 칼슘이 몸속에 흡수되게 하고, 트립토판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합성을 도와서 우울감을 해소하는 효과를 낸다.

한편 평소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옥수수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안 그래도 소화 과정이 느리기 때문에 소화를 더욱 방해할 수 있다. 또한 당지수(GI 지수)가 높아 당뇨병 환자는 옥수수를 먹을 때, 다른 식사를 줄이고 1개 이하로 양을 제한해 섭취해야 한다.



명 진 정 밀

미싱부속 판매
봉재용 소모품
마카지, 패턴지, 밑종이
마이깡 몰드 제작
각종 바늘 판매
재단기 부속 판매
패턴 포마 아크릴

봉제 플랜트 공사
각종 메사 제작
2층 공사, 전기공사
에어 배관공사
보일러 배관공사

뚤람수 로떼 9 만사나 A 섹또르 5
소나 4 데 믹스꼬
전화 : 이사삼사-이이오이/일오삼사
팩스 : 이사삼칠-팔구영칠
핸드폰 : 오영영사-영팔영육



정 치 · 경 제

이재명 지지율 20%로 급등 왜? "'이낙연 견제용' 보수중도표 포함"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 안에 중도 보수표가 들어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최근 상승한 데 대해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가 지난 28일 KBS 정치 토크쇼 <정치합시다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분석했다.

박성민 대표는 "중도보수층의 표심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올라타고 있다. 이 지사가 지난번에 故 박원순 시장 사건 등과 관련해 '아서울 시장, 부산 시장 공천하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물론 나중에 번복하긴 했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야권 지지층들한테는 어필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지율은 좀 올라간다" 라고 말했다.

한국리서치 등 네 곳이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1위는 이낙연 의원으로 24%, 2위는 이재명 경기지사로 20%로 나타났다. 1, 2위 간 차이는 4%포인트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도는 8% 였다.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기관 네 곳은 2주 전인 7월 13일 조사에서도 대선 후보 지지도와 적합도를 조사했으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 등을 고려해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박성민 대표는 중도보수층 일부가 이지사 지지 의사를 밝힌 이유로 이낙연 의원 견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여권과 야권 분리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과 야권 전체를 합쳐서 보는 조사를 한다면 차라리 인지도나 호감도 조사를 하는 게 맞다. 여야 따로 봐야 앞으로 경쟁구도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질문 방식은 왜곡시키고 있다. 1등과 2등이 나머지를 다 누르고 있는 셈인데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다. 이런 조사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미국도 각 정당별로 대선 주자 적합도를 묻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한울 전문위원은 "각 진영별 유력 주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데 의미가 있는 조사다. 특히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지지 기반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박 대표가 각 정당별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 세밀하게 들어갈 단계나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압도적 승리 뒤 지지율 하락..."여당 뜻대로 하란 게 진짜 민심 맞는지 점검해야"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 미래통합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4%, 정의당 6%, 국민의당 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3%포인트 줄었고 통합당은 2%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한울 전문위원은 "정부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처럼 크게 이기면 그 결과에 더 힘이 실리는 편승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당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도 상당 기간 높게 유지되는데 이번 선거 직후에는 여당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전문위원은 "180석이라는 결과에 대해 선거 직후 유권자들이 굉장히 놀랐다. 자신들이 표를 줬지만 이렇게 까지 이길 줄 몰랐던 거다. 총선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의 여야 갈등 등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여러 이슈들이 있었지만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줘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경계감,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여당은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라는 게 민심이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표심이 정말 그거 였을까, 여당 마음대로 해보라는 게 진짜 민심이었을까'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대표는 "정 위원의 지적에 동의한다. 여당은 '국민이 우리가 하는 일을 옳다고 믿고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국회가 그만 싸우고 통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 이슈나 검찰 개혁 이슈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과거 정부와 다른 게 뭐지?'라는 생각이 있



한국 꽃집 - Con Flor

플라워샵 위치 : Z.10-HOLIDAY INN 호텔 근처 TEL.4069-5410, 3042-6968

Conflor Guatemala / Web:www.conflorguatefler.com

기억하고 싶은 모든 순간을 ConFlor와 함께 하세요!!

감사와 축하의 자리에, 향기로운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 드려요.

한국 포장 재료와, 자연미가 돋보이는 플라워 스타일 ~ ConFlor !!

개업 및 결혼식을 빛내 줄 새로운 개념의 세련된 축하 화환 및 모든 화환!

꽃다발, 꽃바구니 당일 배송 서비스 합니다.

1ra. Ave. 12-77 Zona 10 Torre 2 de Santa Clara #7

Tel. 2479-1394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기 때문에 중도보수 가운데 보수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탈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치합시다-라이브〉 방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도 화상 연결프로그램인 '줌'을 통해 출연해 정부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배경 , 정책 효과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장기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없다면 현재의 서울 집값, 강남 집값은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에 사는 보통 시민들의 주거의 질, 삶의 질을 생각해서라도 수도 이전은 이뤄져야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행정 수도 같은 큰 이슈를 추진하는 게 가능하냐는 비판이 있으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리서치 등 네 곳의 조사 결과 행정 수도 이전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거란 의견이 더 많았다. 도움이 될 거라는 응답은 38%,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5% 였다.

이번 정치합시다에서 분석한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하태경 "정의당 통합당과 연대해야".. 김종대 "같이 가길 원하는 건 욕심"

하태경 "민주당, 제2의 유신독재 분위기"
김종대 "입법 급가동, 국회의 입법 기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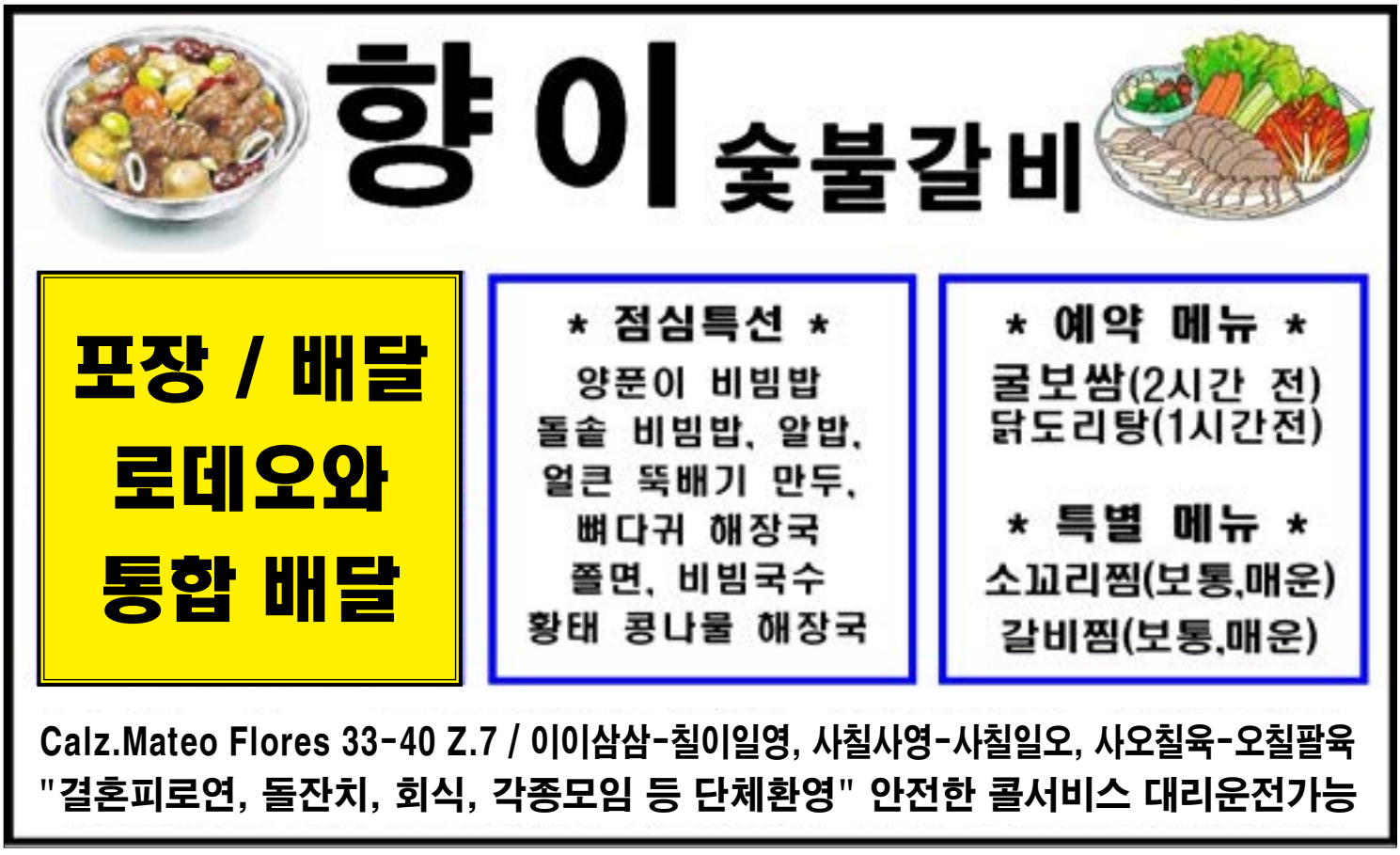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정의당과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의당은 연대 제안을 일축했다.

하 의원과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전 국회의원)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의 입법 과속처리를 비판했다.

하 의원은 "괴물과 싸우다 괴물과 닮아간다고 자기들(민주당)이 지금 오히려 제2의 유신독재 분위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의회주의의 핵심인 축조심사, 법안 한 조 한 조 협의하고 토론하는 건 아예 이번에 생략해버렸다"며 " 실제로 과거 운동권 머릿속에 소위 민중 민주주의, 민중독재인데 그런 포퓰리즘 독재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여당에) 과거 운동권 출신이 제일 많지 않나. 이인영 전 의원도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됐는데 이 장관의 인식에서 보면 (통합당은) 타



도 대상인 것"이라며 "대통령이 하는 건 무조건 도와줘라, 안 도와주면 두들겨 패겠다는 거다. 우리가 군부정권 후예이기 때문에 적대시하는 게 강하게 깔려있다"고 짚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타도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정의당은 활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자기들이 필요할 때 이용하고, 안 그러면 내팽개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정의당도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때를 보면 구좌파와 신좌파 등 많이 바뀌고 있다"며 "특히 그쪽의 신진 정치인은 사실 통합당과 인식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목소리를 계속 내면, 결과적으로 연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며 "정치는 기본적으로 연대다. 적절한 이슈를 갖고 적절한 타이밍에 연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하 의원은 정의당과의 연대가 어려울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는 "정의당은 연대에 대해 아주 소극적인, 부정적인 DNA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선거 때만 연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선거 때 연대가 잘 되려면 평소에도 연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임대차3법' 과속처리 논란과 관련해 "급과속의 위험성을 정의당도 계속 지적하기로 했다"며 "현재 민주당이 정상적인 절차를 초월해 본인들이 원하는 법(처리)만 급가동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기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논의하지 않는 것과 소위원회, 축조심사 자체를 생략해 버리는 게 무슨 관계냐. 민주당 의원들만이라도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건 거의 '묻지 마 절차'"라며 "상대방 당을 탓할 문제가 입법의 본질, 국회 본연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이 언급한 통합당과의 연대에 대해선 "(하 의원은) 정의당 물어뜯는 재미로 정치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라 좀 당혹스럽다"며 "통합당의 정부 비판에 함께 스크럼을 짜고 같이 가길 원하는 건 지나친 욕심"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을 비판한다고 해서 수구세력에게 길을 열어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우연히 (통합당과 정의당이) 같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연대·공조라는 말을 쓰기에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통합당 서울 100만호 공급? 강남 재건축 위한 건지 살펴봐야"

"주택정책은 1가구 1주택 실거자주를 중심으로 맞춰야 한다. 이 원칙을 일관성 있게 갖고 가야 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은 30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의 원칙에 대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쓸 수 없도록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적절한 제동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천 의원은 공급 부족 현상과 관련해 전 정권의 공급택지 공급 부족을 지적했다.

"공공택지 공급을 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전 정부에 비해 떨어졌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올라가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 자체가 4,5년이 걸리는데 현재 공공택지 부족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공급이 부족했던 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어 천 의원은 "앞으로 집을 장만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30대의 추격 매수가 있다"고 언급한 뒤, "기존 주택 '추격 매수'보다 3기 신도시를 주목해달라, 3기 신도시는 서울과 가깝고 녹지 면적이 넓은 스마트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서울 주택 100만호 공급을 하겠다며 '서울시 층수 제한 폐지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등 복합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을 제안한 것과 관련, 천 의원은 "강남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건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재개발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서울 강북 등 저층 주거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을 실시하자, 대신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해 취약지역 등에 사용하자"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 3법'에 찬성해 시세 차익

名家 명가

한방오리백숙, 오리탕,
쟁반국수, 콩국수, 치즈까스,
맛있고 저렴한 스시롤
활어회, 복사시미, 염소탕,
숙수와 차돌, 복찜, 아구찜,
삼합, 숯불돼지갈비

- 현지인 회식 -
삼겹살 무한리필 Q80
배달 합니다.
다양한 메뉴 / 점심 메뉴
회사 도시락 배달

연중무휴 / 영업 7:00, 배달 6:30 / 이이일구-구육육육, 이이삼사-육팔육삼, 오칠영삼-일칠삼사

Tel. 2479-1394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안녕하십니까? 지독하고 참담한 장기간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당당하게꿋꿋이 맞서 견뎌내고 계시는 우리 교민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 한인회에서는 「2020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동포 취약계층 또는 추천하실 분들은 한인회로 지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0.8. 3 ~ 2020. 12. 31
다. 사업내용 : 과테말라 거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라. 신청물품 : 쌀 및 기초생계유지 물품(지원물품은 한인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가구별 상이할 수 있음)
마. 신청방법
1)신청자격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또는 다문화가정으로 코로나19로 생계에 위기를 느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정
2)신청기간 : 2020. 7.20 ~ 2020.12. 31
3)제출서류 : 2020 취약계층 위기 가구 지원 신청서
4)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로 변환하여 한인회 이메일 haninguate@gmail.com로 발송(이메일 발송시 제목: 2020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자 성함 기재 바랍니다.)

주관사단법인재과테말라한인회 / 차세대넥스젠코구아
후원재외동포재단 /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

2020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신청서

아래과 같이 한인회와 넥스젠 코구아에게 신청 또는 추천합니다.

신 청 인			
이 름			
직업 또는 근무지		연락처	
주 소			
지원희망 대상자			
이 름		출생년도	
직업 또는 근무지		연락처	
자 택 주 소			
가족구성원			
지원희망 사유			
과거 도움받은 이력			
신청날짜		신 청 자 서 명	

사단법인 재 과테말라 한인회 / 넥스젠 코구아 귀하

을 봤다는 MBC 보도를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국회 국토위에서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는 위원들은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 확산 왜?

"주 원내대표, 부동산 3법 특혜로 23억 원 시세차익" 보도
누리꾼들, 공론화 위해 '#주호영 23억' 해시태그 운동
김두관·김부겸 비판 가세…"뒤로는 집값으로 떼돈, 입으로는 서민 팔아"

온라인에서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3법의 특혜로 23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을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6일 MBC '스트레이트'는 집값 폭등의 주범이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과된 부동산 3법이라고 보도했다. 부동산 3법은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 강남 아파트들이 줄줄이 재건축을 앞둔 상황이어서 '재건축 특혜법'이라고도 불렸다.

부동산 3법은 여당이던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주 원내대표를 포함한 127명. 이 중 49명이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도 21명에 달했다. 주 원내대표도 반포동에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의 소유주였다.

부동산 3법 통과 뒤 주 원내대표가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의 시세는 22억 원에서 현재 45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총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또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3법의 특혜로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도 2채 분양받았다.

당연히 초과 이익의 환수도 없었다. 주 원내대표 외에도 미래통합당의 윤영석 의원(9억1천만원→28억원), 이현승 의원(10억 8천만원→27억원, 5억 8천만원→16억 5천만원), 윤재옥 의원(8억 3천만원→15억원) 등이 부동산 3법의 특혜를 받았다.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사실이 묻혀선 안 된다며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해시태그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 트위터에서는 장시간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다.

한 누리꾼(트위터 아이디: oj****)은 "주호영 시세차익 23억 원과 관련된 뉴스는 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사실이 묻히지 않도록 우리라도 알리자"며 해시태그를 공유했다. 또 다른 누리꾼(트위터 아이디: bk****)은 "돈 버는 놈은 따로 있었네. 서민들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인데"라며 허탈감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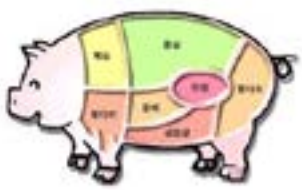
정치권도 주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3법으로) 통합당 의원 3명은 각각 19억, 11억, 7억을 벌었다"며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그마치 23억이다.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도 30일 "원내대표님 강남 집값이 오르는 사이 우리 아파트는 소폭 내렸다"며 주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공직자재산신고를 할 때 보니 대구 집값이 500만 원 떨어졌다. 서울 전셋값은 3억 이상이나 올랐는데 말이다"라며 "며칠 전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접했다. 다수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작게는 몇 억, 많게는 수십억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원내대표께선 강남 집값 시세 차익이 23억이라고 보도됐다. 지난 총선 때, (주 원내대표는) 대구의 제 아파트 바로 옆 동에 주소를 두고 치렀다. 원내대표님의 강남 집값이 오르는 사이 대구 만촌동 우리 동네 아파트는 소폭 내렸다"고 밝혔다.

아람 정육점
CARNICERIA ARAM
신선한 고기로 맛있는 식탁을 꾸미세요!





벌집 삼겹살 개시!!
각종김치, 각종 반찬, 족발

로데오 통합 배달
2호점 : 2221-5364

영업 시간 월~토 / 8:00~7:00
주 일 / 8:00~7:00

전화 : 사오일사- 영팔영이 / 32 AVE. 1-40 Z. 7 UTATLAN 1
위치 : 로데오 2호점 옆 ※ 머릿고기 주문 및 고기 재워 드립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그러면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전·월세 사는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어찌해야 하나 싶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해야 한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강력한 의지와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에 사과 요구 소설가협회 장제원에겐 공문 보낸다

김호운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인터뷰
"재차 성명은 없다..이미 정치권에 의미 전달", "통합당과 장제원에게는 공문으로 대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소설 쓰시네" 발언에 비판 성명을 냈던 한국소설가협회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소설 잘 봤다" 발언엔 공문으로 대응에 나선다.

김호운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은 31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 장관을 향한 성명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재차 성명을 내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장 의원과 통합당에는 공문 등의 형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성향 논란과 관련해선 "저는 오히려 좌파라는 비판도 받아 본 사람"이라며 "문학 발전을 위해서라면 보수, 진보 한쪽에 서본 경향도 없고 좋은 쪽은 모두 협력해서 갈 뿐"이라고 전했다.

연이어 '소설 논쟁' 이어가는 추미애와 장제원

추 장관은 앞선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자 "소설 쓰시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소설가협회는 이에 지난 29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해명 요청 성명서'를 통해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거짓말'에 빗대어 폄훼했다. 추 장관이 해명과 함께 소설가들에게 공개 사과하기를 요청한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소설가협회의 성명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소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통합당 연루설'을 제기한 추 장관을 향해 "재미있는 소설 한 편 잘 읽었다"고 응수했다.

秋 공개사과 요구했던 소설가협회, 장제원에겐 공문 보낸다

소설가협회는 장 의원 발언과 관련해 별도의 성명은 내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추 장관에게 보내는 성명을 통해 정치권에 자신들의 의도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장 의원과 통합당 측에 재발 방지 촉구 공문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비판받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설과 문학인들 자체를 폄훼하는 정치

권의 인식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을 한 직후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생각해 성명을 낸 것"이라며 "정치권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는 해당 성명으로 어느 정도 전달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성명 이후 나온 장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선 "통합당과 장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자신을 '보수 진영 지지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단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정권 퇴진 촉구 시국선언에도 참여한 적이 있는 단체"라며 정치적 편향성을 일축했다.

박주민 "'사회적 대화' 통해 세상 바꾸는 역할 할 것"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권양숙 여사 40분 예방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46·재선)이 31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았다.

박 의원은 이날 같은 당 김정호·김용민·이재정·장경태 동료 의원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묘역에 헌화·분향을 한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박 의원은 너럭바위 앞에서 "노 전 대통령이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어 하셨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했다.

참배를 마친 그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의 합의와 상식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보다 민주적으로 복된 사회로!!!'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그는 참배 후 권양숙 여사와 40여분간 예방했다.

박 의원은 권 여사가 '건강 잘 챙기고 고생 많이 하세요. 머리 시원하게 자르셨다'고 덕담을 건넸다고 전했다.

이후 박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방하고 이날 오후 부산 문화방송(MBC)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 토론회를 준비한다.

은행 예금금리 사상 첫 0%대

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역대 최저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은행 예금금리가 사상 처음 0%대로 떨어졌다. 은행 가계·기업의 대출금리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권 저축성 수신금리는 0.18%포인트 내린 연 0.89%였다.

1996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0%대 금리는 처음이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0.88%), 시장형금융상품 금리(0.92%)도 0%대를 나타냈다.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 가운데 0%대 금리 상품의 비중은 67.1%로 역대 가장 높았다. 기준금리가 연 0.5%까지 내려가면서 금리가 0%대인 정기예금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0.14%포인트 하락해 사상 최저인 2.67%를 기록했다. 가계대출금리 중 일반신용 대출금리는 0.4%포인트 하락한 2.93%로 처음 2%대로 내려갔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의 우량차주에 대한 대출비중이 늘어나면서 신용 대출금리 하락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0.03%포인트 하락하며 역대 최저인 2.49%였다. 집단대출금리도 2.46%로 0.07%포인트 내려갔다.

기업대출 금리는 2.83%에서 2.75%로 내렸다. 역대 최저치다. 다만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90%로 0.02%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은 저금리 대출 비중이 다소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됐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3%포인트로 전월대비 0.08%포인트 벌어졌다. 2018년 7월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2%포인트에서 2.10%포인트로 소폭 줄었다.

한편 제2금융권 예금금리 역시 일제히 하락했다. 대출금리도 새마을금고를 제외하면 모두 내렸다.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실적 터졌다 "하반기도 흑자 예상"

코로나19(COVID-19) 확산이라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 시장 기대치를 훌쩍 웃돈 성적표를 내놨다. 무엇보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부문 흑자 전환에 방점이 찍혔으며 하반기에도 흑자기조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국내 대표 배터리 3인방 중 사실상 가장 먼저 안정적 이익 창출 구도에 안착한 셈이다.

전기차 배터리 등 전지 '사상 최대' 실적…매출비중 2년 전 19.1%→40.7%로

31일 LG화학은 올해 2분기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늘어난 6조9352억원, 영업이익은 131.5% 늘어난 5716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일 기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추정한 컨센서스(영업이익 4103억원) 대비 39.3% 웃돈 수치다.

실적 발표 이후인 오후 12시27분 현재 LG화학 주가는 전일 대비 6.98% 오른 56만7000원에 거래중이다.

관심이 쏠린 것은 이번 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전지(배터리) 사업부문이다. 매출액 2조8230억원, 영업이익 1555억원을 기록했다.

LG화학에 따르면 유럽, 중국 등 전세계 친환경 정책 확대에 따른 전기차 판매 증가, 북미지역 대규모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나를 위한 메세지

시각예술로 가는 길. 앤지정 화실
한국 최대 입시 미술학원 그린심 과테말라 지점

가택 대피 기간 동안 앤지정 화실 학생들이 주간 과제를 통해 제작한 작품들을 소개 합니다. 현 상황에 영감을 받은 주제들을 그림과 짧은 글로 표현했어요.



첫번째 작품: Time Usually Flies 작가: 최아영
(주제: 집에서 찾을수 있는 비전문 재료로 요즘의 일상을 표현하라)

This drawing shows how I have been feeling these days during quarantine. I have been feeling time hasn't been moving. Time feels so slow, and as I can't do anything as I would usually do. Time feels broken. The sunflower represents my happiness and the letters "love" represent an artwork I had seen during my visit to Korea. I have been feeling down lately and the scissors are cutting all of the things I love away. This piece is drawn with watercolor, coffee and tumeric; all materials I found laying around in my house.

유튜브채널: Mishushu (https://www.youtube.com/user/queenhyona)
카톡아이디: angienius@gmail.com
카톡 QR코드
전화: 5834-1414 웹싸이트: angiechung.com 이메일: whenartistheway@gmail.com

ESS(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 공급 등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25% 증가했다. 배터리 안에는 소형 전지, ESS, 전기차 배터리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 전지는 2018년 4분기에 반짝 흑자를 낸 후 6개 분기 만에 흑자 달성이다. 폴란드 공장 수율 개선으로 생산성이 높아졌고 원가 절감이 주효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공장 가동율도 5월 말부터 개선돼 현재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다.

차동석 LG화학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신규 라인 증설 및 추가 생산능력 확대도 순조롭게 진행돼 출하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자동차 전지 사업이 구조적인 이익 창출 기반을 마련한 점이 이번 분기 실적의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유럽향 출하량 확대, 자동차용 원통형 전지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자동차 전지 부문에서 연말까지 흑자를 유지한단 목표다. 또 이를 포함한 전체 전지 매출액이 올 한 해 13조원을 달성할 것이란 기대다. 이는 전년 대비 55% 이상 성장한 수치다.

한편 전체 실적에서 전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추세다. 2018년 1분기 19.1%에서 올해 2분기 40.7%로 2년 여 만에 두 배 이상 늘어 확실한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다.

中 수요 회복에 화학제품도 好好… "북미 ECC 의미 상당, 다양한 옵션 검토"

현재까지 LG화학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47.8%)을 차지하는 석유화학도 5개 분기만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매출액 3조 3128억원, 영업이익 4347억원(이익률 13.1%)이다.

회사 측은 "저유가 영향으로 제품가격이 하락해 매출은 감소했지만 차별화된 운영 역량 강화 및 중국 수요 회복에 따른 ABS(고기능 합성수지) 등 주요 제품 스프레드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LG화학은 ECC(Ethanol Cracking Center·에탄분해설비) 투자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석유화학 경영전략담당 이호우 상무는 "투자비용 탓에 신규 ECC 진입은 어렵겠지만 기존 ECC들의 가치는 증가하고 있다"며 "유가 변동은 언제든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헷지(위험회피) 차원에서 북미 ECC 의미는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적당한 때 적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CC는 NCC(Naphtha Cracking Center·나프타분해설비)와 함께 에틸렌을 얻는 공정 중 하나다. ECC는 유가가 오를 때, NCC는 유가가 내릴 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대다수 기업이 NCC를 활용중이고 LG화학은 현재 보유중인 ECC 시설이 없다.

한편 첨단소재부문은 매출 7892억원·영업이익 350억을, 생명과학부분은 매출 1603억원·영업이익 141억원을, 자회사인 팜한농은 매출 1778억원·영업이익 11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사 회

귀국 이라크 건설노동자 유증상 출발전 17명→ 입국후 31명

"격리상태서 검사..감염 위험 크게 걱정 안해도 돼"

하루 3000명 가까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근무중이던 한국인 노동자 72명이 31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라크 건설 노동자 72명이 소속 기업에서 임차한 임시항공편(QR7487편)을 통해 이날 오전 8시 42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번 민간 임시항공편도 앞선 재외국민 귀국 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유·무증상자 좌석을 분리해 유증상자를 앞쪽에, 무증상자를 뒷좌석에 배치했다.

다만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출발 당시 현지 의료인 확인 당시 17명이었던 유증상자는 인천공항 입국 후 국내 의료진 확인 결과 31명으로 늘었다.

앞서 24일 1차 귀국 당시 출발 전 86명에서 입국 후 89명으로 유증상자가 3명 늘어난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공중급유기(KC-330) 2대에 한국 군의관·간호장교·검역관 등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현지로 함께 급파돼 건강 상태 등을 확인 1차 귀국 1차 귀국 때와 달리 민간 임시항공편을 활용한 이번 귀국에선 바그다드 현지 의료인이 출발 전 간이 검사로 이뤄져 유증상자 수에서 14명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항공기 내에선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앞과 뒤, 좌우 좌석을 비워두는 등 간격을 유지해 기내 감염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72명 중 유증상자 31명은 인천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자 41명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검사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된 노동자들은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음성 판정자도 8월14일까지 2주간 시설 격리에 들어간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분들은 다 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돼 감염 위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기본적인 조치는 다 취하고 비행기에 탑승한다"고 말했다.

이번 귀국 건설 노동자 가운데서도 상당수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방역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중앙유럽 일광 절약 시간대(CEST) 기준 지난 30일 오후 6시3분 이라크 누적 확진자는 11만8300명으로 하루 사이 2968명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사망자는 4603명이다. 여기에 지난 14일 민간 정기 항공편으로 귀국한 105명 중 45명(23일 기준), 1차 귀국 당시 293명 중 77명(28일 0시 기준)이 확진된 바 있다.

정부 "캠핑장 등 개방 공간도 감염 위험 경각심 가져야"

"개방된 곳도 붙어 있거나 침방울 튀면 위험"

정부가 최근 강원 홍천 한 캠핑장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언급하며 야외 개방된 공간에서도 감염 전파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3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4~26일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 홍천에서 캠핑을 했던 18명 중 6명이 감염됐다. 31일 0시 이후에도 캠핑 참가자 중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캠핑장이 상당히 개방된 공간이니까 안심하고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아무리 개방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같이 붙어 있고 침방울을 많이 튀는 행위들, 단체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코로나19의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캠핑장에서의 방역수칙과 관련해 추가할 내용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유증상자의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고 여행 시에는 소규모로 다니되 혼잡한 장소나 시간은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또 거리두기 준수와 침방을 튀는 행위 자제 등도 당부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주말 여름 휴가객으로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발적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며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가와 방학이 될 수 있도록 실내 마스크 착용,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는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말 동안 종교행사와 각종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고 단체식사와 같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자제해주길 당부한다"며 "특히 가족모임이라 할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 시 대화는 자제하고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 접촉은 피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도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방역관리에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쯔강 홍수' 남의 일 아니네..제주 앞바다 전복 폐사 위기

1996년에도 저염분수 유입, 소라 어장 등 큰 피해
도, 비상대책 회의..하류 원전 침수 우려도 주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양쯔강 유역 대홍수로 인한 저염분수의 제주 연안 유입에 대비,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31일 오전 도청 백록홀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중국 양쯔강 대홍수 대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자체 대응 매뉴얼 점검 등을 진행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중국 남부지역의 폭우로 양쯔강의 물 유출량이 지난 12일 초당 8만3200톤까지 늘었고, 최근(26일)에는 7만1000톤 수준으로 분석된다.

양쯔강의 평년 유출량은 초당 4만 4000톤이다.

이처럼 양쯔강 물 유출량이 평년보다 늘어면서 제주 연안으로 대량의 저염분수가 유입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저염분수'는 염분농도가 30psu 이하의 바닷물을 말한다.

1996년 제주 연안에 19~25psu의 저염분수가 유입돼 대정 등 서부지역 어장에서 소라·전복 등 약 184t이 폐사, 5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지방기상청 자문 등을 통해 중국 현지의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저염분수 유입 및 해양쓰레기 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 더해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연계하는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국립수산과학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와 협업을 통해 동중국해 저염분수 이동상황을 예찰하고, 수협 및 어촌계 등에 통보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수온과 염분농도에 따라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단계별 행동요령을 재정비해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금어기 해제 또는 수산생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쓰레기 제주 유입, 양쯔강 하류의 원전 사고 발생 우려 등에 관한 대책도 논의됐다.

특히 양쯔강 하류 원전 침수 등 최악의 상황 시에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정부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경보 수준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중국발 저염수 유입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양쯔강 하류 대홍수는 해양환경 악화와 어민 피해, 최악의 경우 방사성 물질의 유입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순풍식당

포장 및 배달 합니다.
(로데오 통합 배달)

위치 : 아람정육점, 농원식품 옆
32ave 1-34 Z.7 utatlan 1
5577-7686, 2508-5635

순대국밥전문	곱창전골
순대곱창볶음	제육볶음
순대 떡볶음	김치찌개
야채 불고기	된장찌개
북어 콩나물	육 계 장
소머리 국밥	설 렁 탕
해물 순두부	삼 겹 살
오삼 불고기	만 두 국
쭈꾸미 볶음	술 국
쭈꾸미 해물탕	순 대
돼지머리 주문	찐 만 두
머리고기	홍 어 회

수 있는 문제"라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사ㅏㅇ려0세요' 장난인 줄 알았던 119문자 신고는 'SOS'

강원소방, 역추적으로 호흡곤란·경련 일으킨 신고자 극적 구조

'ㅅ00ㅏㄹ0ㅕ줴0애요0', 'ㅏ0사ㅏㅇ려0세요'

이달 19일 오전 강원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문자메시지 신고가 잇따라 들어왔다.

신고자 A씨는 오전 7시 47분께 'ㅅ00ㅏㄹ0ㅕ줴0애요0'라는 문자를 시작으로 1분 뒤에는 'ㅏ0사ㅏㅇ려0세요', 그로부터 7분이 지난 뒤 특정 지명으로 보이는 두글자와 함께 세 자리 숫자를 적은 문자를 보내왔다.

신고를 접수한 김웅종(41) 소방장은 맞춤법이 맞지 않는 메시지가 연속으로 들어오자 처음에는 오인 신고를 의심했다.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119 신고는 휴대전화 버튼을 잘못 누르는 등 부주의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시지가 '살려주세요'라는 의미에 가까운 점과 신고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긴급상황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김 소방장은 신고자 위치를 추적했다.

특히 마지막 메시지가 주소를 의미할지도 모른다고 보고 메시지를 토대로 신고지를 역추적했다.

메시지가 오기 전 같은 번호로 무응답 전화가 걸려온 기록도 찾아내 기지국 정보까지 활용, 유력한 신고지를 찾은 김 소방장은 해당 지역으로 구급대를 출동시킴과 동시에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등은 거주자로부터 A씨가 가족임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집안 곳곳을 살폈다.

A씨의 방문이 굳게 닫혀 있어 창문으로 확인한 결과 A씨는 방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진입한 대원들은 호흡곤란과 경련 증상을 보인 A씨를 곧장 병원으로 옮겼다.

구급대원들은 A씨에게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키고 산소투여 처치를 하는 등 안정시킨 뒤, 지속해서 의식을 확인하며 65㎞ 떨어진 대형병원까지 내달렸다.

구급대원들의 노력으로 A씨는 병원 도착 전 의식과 호흡이 돌아와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김 소방장은 "실수로 신고하는 경우 '잘못 보냈다'고 알려오는데 전화도 받지 않아서 말 못 할 상황에 부닥쳤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려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강원소방은 이번 일을 계기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란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 문자신고, 터치만으로 빠르고 정확한 위치추적이 가능한 앱 신고,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에게 유용한 영상통화 신고를 의미한다.

체납자 가택수색하니 금팔찌 · 명품시계가...

성남시, 상반기 체납액 65억1300만원 거둬

성남시가 올 상반기 동안 체납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6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해 올 상반기에 체납액 5,437건, 65억1,300만원을 거둬들였다.

지방세 4,959건, 58억9,000만원, 세외수입 478건, 6억2,300만원 등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이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이고,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한 성과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물건(동산)은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등 귀금속 42점, 명품시계 10점, 명품가방 1점, 가전제품 366점 등 모두 419점이다. 현금도 1,523만원을 발견해 세입 조치 완료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한 29대 차량의 번호판도 영치했다.

엄갑용 시 세원관리과장은 "동산 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일부는 문을 열지 않고 무작정 버티거나, 욕설을 하고, 자기주장만 하면서 몸을 밀쳐내기도 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조세 형평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가택수색 후 동산 압류, 출국 금지 등 전방위로 압박해 밀린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해 회생의 기회를 주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의 체납액은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막기로 했다.

로트와일러 견주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물어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가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주인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에 달려들어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개의 주인은 30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로트와일러를 훈련시설에 보냈다고 밝혔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솔직히 (사건 당일) 입마개를 하지 못했다"면서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개를) 편하게 좀 해주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한다"면서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이웃들은 문제의 로트와일러 개가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공격해 죽인 적이 있다고 호소했다.

2017년 피해를 본 이웃은 "(문제의 개가) 그 집에서 바로 뛰쳐나와 엄마를 밀치고 우리 개를 바로 물었다. 우리 개는 과다출혈로 즉사했다"고 주장했다.

스피츠 견주는 30일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 상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이다.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견주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이틀 만인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4만 18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우리 믿고 힘내세요".. 충청·전북 자원봉사 손길에 복구 속도

두 동 통째로 물에 잠겼던 대전 코스모스아파트서 250여명 구슬땀
수해지역 곳곳서 토사 제거·응급복구 등 작업 한창

시간당 100㎜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대전·충청과 전북에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우려는 자원봉사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두 동이 통째로 잠겨 1층 25세대 41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대전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에는 31일 날이 밝자마자 250여명이 모여들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적십자 등 기관·단체에서 수해복구에 힘을 보태려고 온 자원봉사자들이다.

향토사단인 육군 32사단 장병 30여명도 훈련을 뒤로 미루고 가세했다.

이들은 주민들과 함께 집 안에 가득 찬 토사를 치우고 물에 젖은 가재도구들을 밖으로 꺼내며 구슬땀을 흘렸다.

거대한 물웅덩이로 변해버렸던 주차장도 자원봉사자들 덕에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한 자원봉사자는 "느닷없이 피부은 물폭탄에 집이 쑥대밭으로 변했으니 이재민들이 얼마나 참담하겠느냐"며 "그래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믿고 기운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코스모스아파트를 찾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허태정 대전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복구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충남 15개 시·군은 침수된 주택·상가 46채와 농경지 61.4ha에 대한 긴급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산, 계룡 등 6개 시·군에서 유실

온세식당(해물전문점)

5194-9428, 2227-9801
30ave 6-30 Z.11 (구 체리쉬, 해마스 APT 옆)
※ 8:30~8:00 영업 합니다 ※



과테 전지역 배달
(토, 일 배달가능)
예약배달/오후8시까지 배달

(불고기,해물)샤브샤브
김치돼지 갈비찜
고등어 김치조림
버섯 만두 전골
김치 두부 전골
해물탕, 해물찜
코 다 리 찜
곱 창 전 골
닭 도 리 탕
닭 갈 비
◆ 예약주문 ◆
LA 갈 비
안 창 살
삼 계 탕
맥반석(숯불)삼겹살
삼겹살(1인분)

뚝배기 불고기
오징어 볶음+사리
골뱅이 무침+사리
돼지 껍데기
제 육 볶 음
동 태 찌 개
생 선 구 이
갈치조림,구이
오징어덮밥
불고기덮밥
왕갈비우거지탕
왕 갈 비 탕
특 도가니탕
설 렁 탕
육 계 장
알 탕

(야채,새우,모듬)볶음밥
(김치,들깨,해물)수제비
(치즈,생선) 돈까스
(물,비빔) 냉면
칼국수, 국수, 우동
김밥+사라다
특 떡볶이
떡 만두국
모듬튀김
새우튀김
닭 순살튀김
캘리포니아롤
연어,참치,장어 스시
모듬스시+초밥
팥 빙 수
각종 김치 주문

※ 모든 탕종류는 집에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포장해 드립니다. ※

된 도로 23곳은 모두 응급 복구됐다.

둑이 무너진 금산 봉황천(800m)과 외부천(200m) 응급조치도 완료됐다.

전날 밤부터 전기 공급이 끊겨 544세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계룡시 신도안면 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전이 임시발전기를 가동하며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간당 최고 66㎜의 폭우가 쏟아진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일대 공장·주택 피해 복구 작업도 한창이다.

옥천군 자원봉사센터, 적십자 옥천지구협의회, 재난재해연합봉사단 관계자 30명과 면사무소 직원 13명, 새마을지도자 10명, 인근 군부대 군인 10명이 복구 현장에 투입됐다.

마을 주민들은 폭우로 침수된 주택과 마을 길에 쌓인 쓰레기 등 잔여물을 치우고 있는 이들을 '천군만마'처럼 반겼다.

봉사자들은 빗물에 잠겼던 공장과 주택 등을 찾아 바닥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를 치우고 가재도구를 정리하며 굵은 땀방울을 쏟았다.

전날 굴착기 15대와 덤프트럭 1대를 투입했던 군북면은 이날도 굴착기 8대와 덤프트럭 1대를 복구 현장에 투입했다.

전북에서도 피해 집계와 함께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깊게 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도로는 복구됐고, 전날 긴급 대피했던 무주군 부남면과 완주군 고산면 주민들은 집에 들어찼던 물이 빠지자 귀가했다.

남원시 주천면과 진안군 성수면 양계장에서는 유입된 토사를 퍼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밤사이 비가 많이 내리지 않으면서 퇴수와 토사 제거, 응급 복구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피해 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고 구체적 복구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월북자, 북한 도착장면 감시장비에 찍혀.. 해병2사단장 보직 해임

합참 조사결과 발표..배수로 10여분만에 탈출→1시간14분 만에 접안 감시카메라·TOD 총 7회 포착에도..초동대처 실패에 감시장비 '무용지물'

한국 정착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김모(24)씨가 북한 땅에 도착했을 당시 장면까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북쪽 지역을 주시하는 전방부대 특성상 김씨가 배수로를 손쉽게 탈출하는 초기 상황 포착에 실패하면서 군 감시장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보도를 통해 지난 26일 월북 사실을 인지한 직후 28일까지 검열 점검을 한 결과 ▲ 수문 등 취약요인 보완대책 ▲ 경계 및 감시요원에 의한 의아점에 대한 적극적 현장조치 ▲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 최적화 및 정상가동상태 확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전 2시 18분께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지만,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어 2시 34분께 연미정 인근 배수로로 이동한 김씨는 2시 46분께 한강으로 입수했다고 합참은 확인했다. 배수로 탈출에 12분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배수로의 경우 이중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철근 장애물이 낡고 일부 훼손돼 '보통 체구의 사람'이 통과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한강에 입수한 이후 조류를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향하기 시작한 김씨는 오전 4시께 북한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씨가 연미정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 후 북한 땅에 도착하는 전 과정은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

채용공고

(주)태평양 물류에서는
참신하고 역량 있는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수출입 신입/경력 0명
학력 무관

[지원방법]
이메일 서류지원
bruno_yty68@hotmail.com

[자격요건]
스페인어, 영어가능자
영주권 소지자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자유양식)

시카메라 5회, 열상감시장비(TOD) 2회 등 총 7차례 포착됐다.

합참 관계자는 "(나중에)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출발지점과 시간 특정해 조류 예상 이동경로 등 근거로 녹화영상 수차례 반복 확인해 다양한 부유물 속에서 영상을 식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수로 탈출 상황 등 초기 상황에서 인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후 상황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되었지만,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합참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철책 직후방 지역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기동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 부대 수문과 배수로를 일제 점검해 경계취약요인에 대한 즉각 보강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뒷북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합참은 조사 과정에서 TOD 녹화영상의 '백업'을 위해 실시간 저장되는 네트워크영상저장장치(NVR)의 전송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북한 보도를 통해 월북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23일 TOD 반장이 해당 장비의 녹화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저장용량 문제로 판단해 23일 이전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다만 당시 월북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2019년 5월 초부터 이달 23일까지 삭제됐던 64개 파일을 복구했지만, 17일 오후 10시~18일 오전 5시 사이에 촬영된 TOD 영상 복구에는 실패했다.

이처럼 녹화 영상은 물론, 백업 영상조차가 없는 경우는 월북 당시 외에도 3차례 추가 확인됐다고 합참은 밝혔다.

"10살 아들 흉기 위협 훈육이라 불구속?"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에서 10살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를 입건해 수사 중인 경찰서에 시민단체가 구속 수사 등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31일 서울 강동경찰서 민원실에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아협은 서한에서 "흉기까지 동원한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 여성청소년계 경찰이 '훈육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엄중하게 항의한다"고 했다.

앞서 30대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10살 난 자기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강동서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뒤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된 상태였고,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피해 아동은 가정으로 돌아온 지 4개월 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고민 중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한 경찰 관계자가 '훈육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아협은 "아동학대신고의 중요성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정작 신고받은 경찰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특히 아동학대 현장 출동과 조사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계 경찰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경찰을 믿고 아동학대신고를 한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흉기로 위협해 구속된 사건이 수없이 많은데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민하는 것은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된다"면서 항의의 뜻을 전했다.

대아협은 △심각한 학대를 훈육의 과정이라고 발언한 경찰관에 대한 엄중 문책 △강동서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구속 수사 등을 요구했다.



* 영업시간 *
오전 9시 부터
오후 8시 까지

한국산 초경량 안경테
(다양한 가격, 디자인)

2258-9667
5575-1090
Óptica Exprés
Blvrd Los Próceres
16 avenida esquina
17-62 Zona 10
Óptica Exprés

국 제

WHO "코로나19 초기 선진국 보건능력 과대평가했다"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 6개월 소회.."젊은이들 천하무적 아냐" 재차 강조

세계보건기구(WHO)가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선진국의 대응 능력을 과대평가했다고 털어놨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얻은 교훈을 묻는 말에 부유한 국가들의 보건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더 부족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WHO는 6개월 전인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전염병 경보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부유한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보건 정책을 너무 늦게 취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공중 보건에 대한 투자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을 배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WHO는 전통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를 지원하지만, 시계를 6개월 전으로 돌린다면 선진국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WHO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천681만2천755명으로, 미국(432만3천160명), 영국(30만1천459명), 스페인(28만2천641명), 이탈리아(24만6천776명) 등 주로 부유한 국가에서 많이 보고됐다.

이에 대해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한국과 독일 등의 사례에서 보듯 발병 상황을 반전시키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WHO는 코로나19의 확산 통제를 위해 젊은이들의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증거에 따르면 여름철 경계를 늦춘 젊은이들이 몇몇 국가에서 (확진자 수) 급증을 부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도 감염될 수 있고 죽을 수 있으며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면서 "이전에도 말했지만 젊은이들은 천하무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선 연기 우기다 철회 최악 성장률 덮기 성공?

-32% 성장률 발표 직후 트윗으로 우편투표 이슈화 돌발행동에 공화당도 곤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대선 연기론을 9시간 만에 철회했다.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지만 대선 연기론의 배경인 우편투표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나온 사상 최악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비판도 덮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저녁에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대선 연기를 거론한 트윗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선거와 결과를 원한다"며 "내가 선거 일정이 변경되길 원한다고? 아니다. 나는 부정 선거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윗을 통해 우편투표가 "사기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고 무사히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룬다???"라고 적어 큰 혼란을 불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각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를 고려하자 자신에게 불리하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공론화를 만드는 데는 실패해왔다. 이번에 부정투표가 될 수 있다며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대선 연기의 이유로 언급함으로써 분위기를 환기하는 데 기여하게 됐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후 자신의 트위터에 "부정직한 미디어들이 마침내 우편투표의 위험성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면서 "기쁘다"고 밝혔다.

대선 연기에서는 한 발짝 물러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에 대한 반감을 여전히 드러냈다. 그는 "나는 (결과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고 나서 투표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대선 연기 언급으로 워싱턴 정가는 그야말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공화당 인사들은 '폭탄 처리'에 나서야 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나라의 역사에 있어 전쟁에도, 불황에도, 남북전쟁에도 연방 차원에서 잡힌 선거를 정시에 치르지 않은 적은 결코 없다"며 예정대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CNN은 "대통령이 불을 지르는 언급을 해놓고 수습하느라 공화당을 애먹게 만든 가장 최근 사례"라고 평했다.

존 루이스 상원의원 장례식 추모사에 나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우편 투표를 훼손해 국민의 (대선) 투표를 좌절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권력자들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선에 대한 미 대중의 신뢰를 약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극적인 최근의 시도"라고 했고 CNN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대선 기간 '우편투표=사기·선거 부정' 프레임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과 대선 불복의 명분 확보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이날 해프닝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미치광이 전략'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연기 시사 트윗은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직후 나왔다.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32%로 73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성장률 보도를 분산시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뒤 여론의 역풍을 감안, '치고 빠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캠프 측도 이날의 해프닝을 경제 치적이 최악의 경제성장률로 뒤바뀐 것을 뒤덮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으로 해석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인근 미국적십자 본부를 방문하고 코로나19 완치자들이 지역의 혈액은행에 혈장을 기부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안정화해 대선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베네수엘라 국민 코로나 감염 숨기는 이유 "무서운 정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해도 이를 애써 숨기고 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정권 때문이다.

현지 언론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무조건 잡아가 격리시설에 가두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다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며 "발열 등의 증상이 발현해도 숨기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포털 파남포스트에는 최근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격리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한 남자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간이검사에서 엉터리 양성 판정이 나오는 바람에 격리시설에 수용됐다가 풀려났다는 남자는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잡아가 격리시설에 가두고 여기에서 다시 검사를 받게 한다"며 검사결과 나오기까지 사실상의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자가 격리됐던 곳은 카라카스의 한 호텔이었다. 그는 "격리시설로 전환된 한 호텔에 들어가니 방마다 3명이 갇혀 있더라"며 "밖에서 문을 잠가 나오지 못하는 방에서 낯선 사람들과 한 침대를 사용하며 지내야 했다"고 했다. 그는 정식 코로나19 검사결과에서 음성판정이 나오면서 7일 만에 풀려났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경찰과 군을 동원, 길에서 행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코로나19 간이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즉각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간이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바로 버스에 실려 격리시설로 이동된다. 격리시설에 들어가기 전 집에 들러 옷을 챙기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격리시설에서 다시 정시 검사를 받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진 7일이 걸린다. 일단 격리시설에 들어가면 최소한 7일은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지 언론은 언제부턴가 "열이 난다"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말을 하는 게 두려운 나라로 변해버렸다며 마두로 정부가 팬데믹에도 비밀경찰과 특별행동대를 앞세워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베네수엘라 의료시스템은 사실상 붕괴 상태라는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의사 출신 상원의원인 윌리암 바리엔토스는 "수돗물과 전기 공급이 끊긴 병원이 수두룩하고, 1급 병원이라는 곳엔 엑스레이 장비조차 없는 경우가 확인됐다"며 "열악한 환경에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늘어나자 의료시스템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술리아주에서만 의사 18명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다"며 "베네수엘라 의료시스템이 코로나19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마두로 정부 보건부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까지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7158명, 사망자는 156명이다. 하지만 현지 의학계에선 통계가 축소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뱀술 팔던 男, 공연 중 뱀에 물려 현장서 즉사

전통시장을 돌며 조련한 뱀 공연을 하며 '술'을 팔던 남성이 자신이 조련한 뱀에 물려 사망했다. 이 남성은 이날 전통시장에 모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만든 일명 '약술'을 먹인 뱀이 단번에 닭을 잡는 공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 광시좡족자치구 라이빈시 소재의 전통시장에서 약술을 팔며 생계를 이어왔던 이 남성(33)은 뱀 공연 중 자신이 조련한 뱀에 물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는 당일 공연 중 독니를 제거하지 않은 독사 '코브라'가 그의 귀를 문 뒤, 온몸에 독이 번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날 전통시장에서 자신이 조련한 뱀에게 술을 먹였고 술을 먹은 뱀이 닭을 제압하는 공연을 시연 중이었다. 술의 효능을 검증해 주민들에게 대량의 술을 판매하려던 전략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가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술을 먹은 뱀은 닭을 공격하는 대신 돌연 남성의 귀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남성이 뱀의 한 차례 공격 이후 곧장 바닥에 쓰러진 뒤 팔다리를 심하게 떠는 장면이 담겼다. 뱀 공연 중 그는 헬멧, 장갑 등 보호 장비를 일체를 미착용한 상태였다.

이후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약 2시간에 걸친 응급 치료가 진행됐으나 전신에 독이 번진 이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가 뱀 공연을 통해 약술을 판매한 지 7년 만의 사고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남성은 지난 2015년에도 뱀에 물려 이틀간 깨어나지 못하다가 기적적으로 회복, 이번에는 뱀독을 이겨내지 못한 채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약 7년 동안 일명 '약술'로 불리는 술을 판매했던 그는 뱀과 도마뱀 등 파충류를 포획하고 조련해 공연하는 기술이 남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맹독을 가진 코브라를 조련해 각 지역 전통시장을 돌며 자신이 제조한 술을 대량으로 판매해왔다.

한편,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응급대원들은 이 남성이 조련한 독사 코브라는 독니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독니를 제거하지 않은 코브라는 맹독이 있어 한 차례 물릴 경우에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관할 파출소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야생 동물이든 인간을 공격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서 "조련에 능숙한 사람일지라도 한 시도 야생 동물에 대한 경계심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뱀에 물렸다면 물린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나뭇가지 등으로 고정한 뒤 물린 부위가 심장보다 아래쪽을 향하도록 위치시켜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매를 걷어보니.." 팔에 '중요 부위' 달린 남자

절대다수의 남자들에게 성기란 사타구니 사이에 달려 있는 소중한 신체의 일부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면 어떨까?

30일(현지시간) 영국 더선은 4년째 팔에 성기가 달린 채 살아오고 있는 맬컴 맥도널드(45)의 사연을 전했다.

끔찍한 질병으로 잃은 원래 성기를 대체하기 위한 인공 성기를 팔에 붙인 채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팔에 붙인 인공 성기가 다 자라면 원래의 자리로 이식할 예정이었다.

더선과의 인터뷰에서 맥도널드는 "물론 팔에 성기를 달고 사는 건 미친 짓이다. 사실 나도 익숙하지 않다. 티셔츠를 입고 쇼핑을 갈 수 없다. 수영도 못 한다"고 털어놨다.

맥도널드가 성기를 잃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패혈증이 하반신 전체에 퍼져 온몸이 검게 변했고, 결국 성기까지 검게 변한 뒤 떨어져 나간 것이다.

맥도널드는 성기를 잃고 "자신감을 잃었다. 남자가 아닌 것 같았다"며 집에 틀어박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맥도널드가 희망을 되찾은 건 2년 뒤인 2016년 '성기 마스터'란 별명의 데이비드 랠프 런던대학병원 교수를 만나면서였다. 랠프 교수는 선천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한진 인터내셔날



▶미싱 부속 판매 ▶각종 소모품 판매 ▶ 각종 바늘 판매

▶패턴지, 마카지 판매 ▶패턴포마 아크릴

미싱부속 및 모든 소모품 전 지역 배달

36Ave "A" 3-46 Zona7 El Rodeo 카톡ID : monica7890

E-mail : hanjinter1206@hotmail.com , hanjinguate77@gmail.com

이사삼사-영칠사삼, 이사삼사-일팔오구, 오이영팔-영삼이이, 삼영삼육-이삼칠영

적으로 성기가 없이 태어난 사람에게 인공 성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피부 조직 등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 랠프 교수는 인공 성기를 만들 적소로 맥도널드의 왼팔을 선택한 것. 맥도널드를 위한 인공 성기를 만드는 데는 5만파운드(약 7800만원)가 들었다.

맥도널드는 "처음 팔에 올려놓은 인공 성기를 봤을 때 너무 자랑스러웠다"며 "나에게는 이미 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는 큰 걱정이 아니었다. 자신감 회복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맥도널드의 인공 성기는 원래 성기보다 길이도 5.08㎝이나 길었다. 맥도널드는 이 새로운 친구에게 '지미'라는 애칭을 붙여주기도 했다.

당초 계획은 수술을 받은 지 2년 뒤인 2018년이면 재수술을 통해 인공 성기를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붙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맥도널드는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은 연기됐고 결국 4년째 왼팔에 성기가 달린 채로 살게 됐다.

맥도널드는 연말까지 인공 성기를 원래의 자리에 붙이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브라질 대통령 코로나19 회복후 첫 일정서 또 '마스크 무시'

지방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위반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첫 공식 일정에서 또다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동부 피아우이주(州) 상 하이문두 노나투 공항을 거쳐 이곳에서 가까운 바이아주 킴푸 알레그리 지 루르지스 지역에서 열린 상수도 공급시설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내린 뒤 말에 올라탄 채 자신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다가갔으며,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악수·포옹하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확성기를 들고 즉석에서 연설도 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마치고 피아우이주에 있는 세하 다 카피바라 국립공원을 돌아보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아우이주에서는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어기면 500헤알(약 11만5천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차 적발되면 벌금액이 배로 늘어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보건당국과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6일 이뤄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관저 격리에 들어갔으며 14일과 21일에 이뤄진 2~3차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 24일 이뤄진 네 번째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27일부터 정상 업무에 복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부인 미셸리 보우소나루 여사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셸리 여사는 전날 대통령궁에서 열린 행사에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연설했다.

이 행사에는 농업부·여성가족인권부·경제부·국방부·법무부·통신부 장관과 우파 사회자유당(PSL) 하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파키스탄 '가짜 면허' 조종사들이 착륙 때마다 급하강 한 이유는?

여객기 민가추락 등 잇단 항공사고 원인 조사해보니
조종사 860명 중 262명이 가짜 또는 부정 면허
조종사 6명 '알자지라' 인터뷰서 충격적 실태 고백

지난 5월 파키스탄 남부 도시 카라치의 주거 지역에 여객기 한 대가 추락했다. 승객·승무원 99명 중 97명이 사망했다. 다행히 주민 중 사망자는 없었다. 사건을 조사한 파키스탄 당국은 조종사의 비행 실수, 즉 인재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2018년 파키스탄 정부가 항공 사고를 계기로 시작한 조종사 면허 조사 결과 일부가 발표됐다. 파키스탄 전체 조종사 860명 가운데 262명이 가짜 면허이거나 면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 항공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미국·유럽 등 세계 각국이 파키스탄 항공사의 취항을 금지하고, 파키스탄 국적 조종사 면허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파키스탄 조종사 6명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아랍 언론 〈알자지라〉와 인터뷰해, 파키스탄 항공 산업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고백했다. 5월 민가 추락 사고도 연료를 아끼기 위한 '급강하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11번 착륙 시험 실패해도 '통과'… "부정행위 너무 쉬웠다"

조종사들은 비행 면허와 관련한 부적절한 관행이 파키스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한다. 조종사 ㄱ씨는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2009년 조종사 면허 시험을 볼 때, 항공협회 쪽에 돈을 내면 부정행위를 할 수 있었다"며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쉬웠다"고 말했다.

2011년 유럽 기준에 맞춰 조종사 면허 시험의 횟수가 늘고 컴퓨터 시험이 도입되자, 아예 시험을 치지 않고 통과시켜주는 부정행위가 생겨났다. 조종사 ㄴ씨는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허증에 사인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 착륙 시뮬레이션 시험에서 11차례 추락 사고를 일으켰지만 문제없이 통과한 조종사가 있었다"며 "나중에 이 조종사가 본인의 수법을 나에게 얘기해 줬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항공업의 안전 불감증은 당국-항공사-조종사 모두에 만연했다. 비정상적 비행 조작이나 비행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관리시스템이나 비행데이터관리시스템은 일상적으로 무시됐다.

조종사 ㄷ씨는 "파키스탄민간항공청(PCAA)은 일상적으로 항공사의 안전 무시 행동을 묵인했다"며 "감독 당국과 운영자가 한 침대를 썼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대로 부품을 싣지 않은 채 비행기가 이륙했고, 정해진 인원보다 적은 수의 승무원이 탑승했다"며 "민간항공청과 항공사 경영진이 공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규정상 정해진 최대 비행근무 시간을 어긴 경우도 적지 않았다. 파키스탄 항공 규정상 조종사는 최대 18시간 이상 비행근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19~24시간 근무한 경우가 올해만 최소 8건에 달했다.

총체적 부실은 높은 사고율로 나타났다. 파키스탄은 최근 10년 동안 5차례 대형 추락 사고가 발생해 모두 445명이 사망했다. 국제민간항공기

- 번 역 -
한국어→스페인어
스페인어→한국어
각종 서류 번역
5308-4441

구(ICAO) 자료를 보면, 지난해 파키스탄 항공사의 사고 발생률은 1백만 건당 14.88건으로, 전 세계 평균(3.02건)보다 5배 가까이 높았다. 2014~2016년에 12~15건을 기록했고, 2012년에는 55.35건이나 됐다. 한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4건 이하를 유지했고, 2011년이 3.62건으로 가장 높았다.

안전보다 절약 먼저…연료 아낀 조종사에 최고 노선

파키스탄국제항공(PIA) 소속 조종사들은 높은 고도로 비행하고 착륙할 때는 급하게 하강하도록 교육받는다. 이른바 '핫 앤 하이' 방식으로,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조종사 ㄴ씨는 "항공사는 조종사들에게 얼마나 연료를 썼고, 절약했는지 이메일로 기록하게 했다"며 "가장 연료를 많이 아낀 조종사에게 최고의 노선이 배당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국제항공 조종사들의 착륙 실수가 자주 일어난다. 조종사 ㄴ씨는 지난해 착륙 목표 지점을 벗어난 것만 30차례 이상이고, 3차례 이상은 활주로 자체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국제항공은 이를 부인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카라치 주택가 추락 사건도,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28㎞ 떨어진 지점에서 관제 센터의 권고보다 2㎞ 높은 3㎞의 고도를 유지했다. 당시 사고가 '핫 앤 하이' 방식의 결과일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40년 경력의 국제 항공 컨설턴트인 데이비드 그린버그는 "이런 방식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 마치 불안정한 계단을 내려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전 세계 비상…한국은 파키스탄 취항도, 조종사도 없어

파키스탄과 항공편을 교류하는 국가들은 비상이 걸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파키스탄국제항공의 취항을 금지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파키스탄인 조종사가 일하는 국가는 이들의 비행을 금지하고 면허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파키스탄 항공부는 외국 항공사에 근무하는 자국 조종사 176명 중 166명은 문제가 없고 10명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현재 파키스탄과 직접 교류하는 항공편이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가 파키스탄에 취항하지도 않고 있고, 파키스탄 항공사가 국내로 바로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중간에 경유편으로 파키스탄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각국이 조사를 하고 있어 과거처럼 위험한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

또 국내 항공사에는 파키스탄 국적 조종사가 한 명도 없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항공사에는 총 70개국 586명의 외국 국적 조종사가 근무하는데, 이 중 파키스탄 국적 조종사는 없었다.



스 포 츠

'류현진 5실점' 토론토, 워싱턴에 4-6 패 4연전 2승 2패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지난해 월드시리즈 챔피언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4연전을 2승 2패로 마감했다. 류현진(33)은 개막전에 이어 2경기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토론토는 7월 31일(한국시간)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4-6으로 패배했다. 이번 시리즈는 홈 2연전, 원정 2연전이지만 토론토의 홈구장 정비에 따라 워싱턴의 홈인 내셔널스 파크에서 4연전을 실시했다.

시작은 좋았다. 토론토는 1회 선두타자 보 비셋의 2루타와 내야 땅볼로 1사 3루 찬스를 맞이했다. 이후 3번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좌익수 앞에 뚝 떨어지는 바가지 안타를 때려내며 토론토는 선취점을 얻었다.

그러나 이후로는 워싱턴의 분위기로 흘러갔다. 2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은 류현진은 3회 연속 안타로 2사 1, 3루 위기를 맞이했다. 여기서 커트 스즈키가 우익수 키를 넘기는 역전 2타점 2루타를 때려냈다. 워싱턴은 4회에도 마이클 테일러의 2점 홈런으로 4-1까지 달아났다.

워싱턴은 5회 결국 토론토의 에이스 류현진을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이닝이 시작하자마자 스탈린 카스트로와 아스드루발 카브레라가 연속 2루타를 때려내며 3점 차를 만들었다. 스즈키를 삼진으로 잡은 류현진은 결국 4.1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갔다.

토론토는 4회와 8회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7회 캐번 비지오가 각각 솔로 홈런을 때려내며 추격에 나섰다. 하지만 워싱턴 역시 8회 초 트레이 터너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더 달아났다. 워싱턴은 끝까지 리드를 지키며 4연전을 2승 2패로 마감했다.

워싱턴은 3번 타자로 나선 스탈린 카스트로가 1회 12구 승부 끝에 안타를 때려내는 등 4타수 4안타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반면 토론토는 에르난데스가 멀티 홈런을 때려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토론토의 선발로 나선 류현진은 4.1이닝 9피안타 5탈삼진 1볼넷 5실점을 기록하며 시즌 첫 패를 안았다. 내용도 좋지 않았고 개막전에 이어 2경기 연속 5이닝 미만으로 투구하며 이닝 소화력에도 의문부호가 붙었다.

탬파베이 최지만 대타 출전 1타점 적시타

최지만 1타수 1안타 1타점..팀은 1-2로 석패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29)이 대타로 출전해 적시타를 터뜨렸다.

최지만은 31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컴벌랜드 트루이스트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원정 경기 0-2로 뒤지던 7회 초 2사 2루에서 대타로 출격했다.

상대 팀은 잘 던지던 좌완 선발 맥스 프리드를 내리고 우완 투수 루크 잭슨을 올렸는데, 탬파베이는 이에 맞춰 좌타자 최지만 카드로 응수했다.

마이클 브로소를 대신해 타석에 들어선 최지만은 잭슨을 상대로 초구를 노렸다.

그는 시속 138㎞ 슬라이더를 공략해 2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우전 적시타를 뽑았다.

최지만은 29일 애틀랜타와 홈 경기 막판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했고 30일 경기에 이어 31일 경기에서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와 제역할을 하며 존재가치를 증명했다.

이날 1타수 1안타를 친 최지만의 올시즌 타율은 0.133에서 0.188(16타수 3안타)로 상승했다.

그러나 탬파베이는 최지만의 1타점 적시타에도 결국 애틀랜타에 1-2로 석패했다.

'65년 만 진기록' CLE 쉐인 비버 2경기 연속 무실점 13K+ 기록하며 2연승

쉐인 비버(25,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2경기 연속 무실점과 13탈삼진을 기록하며 반가운 이름을 소환했다.

31일(한국 시간) 미국 미네소타 타겟 필드에서 열린 클리블랜드와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비버가 미네소타 강타선을 상대로 8이닝 무실점, 3피안타 0볼넷 13탈삼진을 기록하며 승리를 따냈다.

지난 개막전에서도 비버는 캔자스시티 로열스를 상대로 6이닝 1피안타, 1볼넷 14탈삼진으로 무실점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14개의 탈삼진을 잡아냈지만 캔자스시티가 리빌딩을 하고 있는 팀인 탓인지 비교적 화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상대한 미네소타는 지난해 101승 61패로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우승을 달성한 강팀이다. 메이저리그 최초로 단일시즌 5명의 타자가 30홈런 이상을 기록했고, 올해는 2015년 아메리칸 MVP 출신 조쉬 도날드슨(34)까지 가세한 강타선이어서 비버의 기록은 더욱 주목을 받았다.

비버는 3회 선두 타자 아라에즈에게 안타를 맞기 전까지 퍼펙트를 이어가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FUMIGADORA AMICO
방역소독전문업체
3482-6156
/fumigadoraAMICO/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서비스
집 및 회사
방역 상담 환영


KN95
마스크 판매

10장×Q240
김 광 석 : 5804-0030

고 있었고, 6회 바이런 벅스턴과 맥스 케플러에게 연속 안타를 맞은 것이 이날 미네소타에 허용한 출루의 전부였다.

지난해 37홈런을 기록한 도날드슨과 31홈런을 기록한 미치 가버도 오늘 비버 앞에서는 4타수 무안타 3삼진으로 무기력했다.

미국 매체 ESPN에 따르면 오늘 비버의 시즌 첫 2경기에서 기록한 27탈삼진은 1954년 칼 스푸너의 기록과 동률로 메이저리그 최다 기록이다. LA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였던 스푸너는 9월 23일 뉴욕 자이언츠(現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9이닝 무실점 15탈삼진, 9월 27일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를 상대로 9이닝 무실점 12탈삼진으로 2경기 연속 완봉승을 거둔 바 있다.

또한, 2경기 연속 13탈삼진 기록은 2014년 코리 클루버 이후 클리블랜드 프랜차이즈 역사상 6번째로 팀의 역사에도 남았다.

승점 1점당 500만 파운드 맨유, 2019/2020 EPL 가성비 꼴찌

2019/2020 프리미어리그에서 팀 전체 연봉 대비 승점을 계산해 봤을 때 '가성비'가 가장 좋았던 팀은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나타났다.

영국 '더선'은 30일(현지시간) '디애슬래틱스'를 인용해 2019/2020시즌 프리미어리그 20개팀의 팀 전체 연봉 대비 승점을 계산해 순위를 매긴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셰필드는 총 연봉 4000만 파운드에 승점 54점을 얻어 100만 파운드당 승점 1.35점을 기록했다. 투자 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 팀이었다.

2위는 울버햄프턴, 3위는 번리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1억7900만 파운드의 연봉을 쓰고 승점 59점을 기록, 12위에 올랐다. 우승팀 리버풀은 3억1000만 파운드를 쓰고 99점을 얻어 효율로만 따지면 토트넘 보다 아래인 13위에 그쳤다.

하위권은 빅클럽들이 차지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100만 파운드를 쓰고 얻은 승점은 0.2점에 불과했고, 꼴찌인 20위에 머물렀다. 맨유는 총연봉 3억3200파운드로 선수 연봉으로 가장 많은 돈을 쓴 구단으로 나타났다. 이 단순계산법으로만 따지면, 맨유는 올 시즌 승점 1점을 얻는데 500만 파운드를 쓴 셈이다.

17위는 맨체스터 시티, 18위는 아스널, 19위는 첼시로 내로라하는 빅클럽들이 효율 면에서는 줄줄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강성훈, WGC 페덱스 세인트주드 1R 단독 4위 임성재는 9위

1년에 서너 차례 열리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시리즈는 메이저 대

회 못지않은 거액의 상금을 자랑한다. 일반 대회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참가하고 컷 탈락도 없다.

그에 걸맞게 철저하게 성적과 세계랭킹 등을 기준으로 출전 선수를 선발한다.

세계랭킹 57위를 달리는 강성훈(33)이 31일(한국시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TPC 사우스윈드(파70·7,277야드)에서 개막한 WGC 페덱스 세인트주드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50만달러)에서 첫날 선두권으로 나섰다.

강성훈은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5언더파 65타를 쳐 단독 4위에 올랐다.

타이틀 방어에 나선 지난해 우승자 브룩스 켑카(미국)가 8언더파 62타의 맹타를 휘둘러 단독 선두에 나섰고, 리키 파울러, 브랜든 토드(이상 미국)가 나란히 6언더파 64타로 공동 2위다.

초반 11번홀(파3)에서 아이언 티샷을 물에 빠뜨린 여파로 보기를 적어낸 강성훈은 12번홀(파4)에서 5m 버디 퍼트를 집어넣으면서 분위기를 바꾸었다.

이후 파4 홀인 15번, 17번, 18번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잡아냈다. 특히 17번홀에서는 7m가 넘는 거리에서, 18번홀에서는 6m에서 퍼트를 성공시켰다.

후반에는 4번홀(파3)과 6번홀(파4)에서 깔끔하게 버디 2개를 추가했다. 핀과 2~2.5m 근처에 볼을 떨어뜨렸을 정도로 샷 감도 좋았다.

강성훈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한국선수로 유일하게 참가해 60위를 기록한 바 있다.

세계 23위 임성재(22)도 3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9위로 선전했다.

10번홀에서 티오프한 임성재는 전반에 보기와 버디 2개씩 바꾸면서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후반 4번(파3), 6번(파4), 9번홀(파4)에서 버디를 골라내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최근 5개 대회에서 컷오프 2회 등 모두 50위 밖으로 자존심을 구겼던 임성재가 자신의 강점인 퍼팅감이 돌아온 게 고무적이다.

이날 그린 적중 시 퍼트 수 1.444개를 적어낸 임성재는 출전 선수들 중 이 부문 2위를 기록했다.

최근 부진으로 세계 62위까지 밀린 안병훈(29)도 공동 15위로 무난하게 출발했다.

안병훈은 초반 1~3번홀 3연속 버디를 포함해 1라운드에서 버디 6개를 잡아내고 보기 1개로 막았지만, 전반 5번홀(파4)에서 나온 트리플보기가 뼈아팠다.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려 러프로 향하면서 경기가 꼬였다. 벌타를 받고 친 세 번째 샷은 페어웨이 벙커에 빠졌고, 5번째 샷만에 그린에 올라와 2퍼트로 홀아웃했다.

김시우, PGA 투어 배러쿠다 챔피언십 1R 공동 18위

김시우(25)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배러쿠다 챔피언십(총상금 350만달러) 첫날 공동 18위에 올랐다.

김시우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트러키의 타호 마운틴클럽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기록했다.

이 대회는 선수들의 홀별 성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합계 점수가 많은 선수가 상위에 오르는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앨버트로스를 하면 8점, 이글을 잡으면 5점을 얻고 버디는 2점을 추가한다. 파를 할 경우에는 점수 변동이 없고 보기는 1점, 더블보기 이상은 3점을 각각 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김시우는 8점을 획득해 공동 18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

지난주 3M오픈에서 3라운드까지 공동 19위를 달리다가 마지막 날 1오버파를 치는 바람에 순위가 46위로 밀려 아쉬움을 남긴 김시우는 이번 대회에서 다시 상위권 입상에 도전한다.

라이언 무어와 애덤 셍크(이상 미국)가 14점을 얻어 공동 선두에 나섰고, 패트릭 로저스(미국) 등 세 명이 11점으로 공동 3위다.

이경훈(29)과 위창수(48)는 나란히 4점으로 공동 50위, 배상문(34)은 3점으로 공동 62위다.

'슈퍼매치' 벌이던 수원·서울이 어쩌다.. 동시에 수장 잃은 '명가'

이임생 수원 감독 이어 최용수 서울 감독도 중도 사퇴

한때 K리그를 선도했던 수원삼성과 FC서울이 동시에 수장 없이 시즌을 치르게 됐다. 수원과 서울의 감독들이 같은 시즌에 중도 퇴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은 지난 30일 "최용수 감독이 자진 사퇴했다. 아직까지 차기 감독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올 시즌 K리그에서는 3명의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놨다. 지난 6월28일 임완섭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인천유나이티드를 떠났고, 지난 17일에는 이임생 전 수원 감독이 스스로 물러났다. 여기에 최용수 감독까지 사퇴하면서 3개 구단이 시즌 도중 수장을 잃었다.

주목되는 점은 '슈퍼매치'를 벌이던 명문 수원, 서울의 감독들이 성적 부진으로 시즌 도중 팀을 떠났다는 것이다. 과거의 수원과 서울을 떠올리면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두 팀에는 국가대표는 물론, 최고의 외국인 선수들이 즐비했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빠어난 경기력으로 K리그를 주도하던 수원과 서울이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두 팀의 경기는 '슈퍼매치'로 불리며 수원, 서울 팬은 물론이고 K리그 전체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올 시즌 수원과 서울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모두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에 팬들은 지난 4일 열렸던 두 팀의 맞대결을 두고 '슈퍼매치'가 아닌 '슬퍼매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수원은 시즌 초반부터 휘청거렸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를 2연패를 포함해 총 4연패를 당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조호르에게 당한 1-2 패배는 충격적이었다.

인천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고 연패를 끊었지만 수원은 이후 단 한 번도 연승을 거두지 못하는 등 꾸준한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추락했다. 팀이 부진한 상황에서 팀 내 유일한 국가대표였던 홍철이 울산으로 떠났다.

결국 이임생 감독도 사령탑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주승진 감독대행 체제에서 수원은 K리그와 FA컵 등 총 3경기를 치러 1승2패에 그치고 있다. 득점도 단 1골로, 시즌 초반 지적됐던 공격력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은 수원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 서울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K리그 3라운드까지 2승1패를 기록하면서 상위권에 있었다. 하지만 5월 마지막 경기였던 성남전 0-1 패배를 시작으로 25년 만에 5연패를 당하는 등 날개없이 추락했다.

역시 인천전 1-0 승리로 연패를 끊었지만 이후 6경기에서 K리그2(2부리그)의 대전하나시티즌을 승부차기로 이긴 것 외에는 1무4패로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은 3승1무9패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배를 당하면서 11위에 머물고 있다. FA컵에서도 포항스틸러스에 1-5로 참패하는 수모를 당하면서 8강에서 탈락했다.

이젠 명문이 아닌 평범한 팀으로 전락한 수원과 서울로선 대대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올 시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시즌 38경기에서 27경기로 줄었다. 시즌 절반인 13경기씩 치른 가운데 반등이 늦어지면 2부리그 강등도 현실이 될 수 있다.

5G '2골 4도움' 강상우, "팀 승리에 도움 되고 싶다"

강상우가 상주 상무에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포항 스틸러스 소속으로 활약하던 측면 수비수 강상우는 상주에서 두 시즌째 활약하며 에이스로 거듭났다.

상주는 13라운드를 마친 현재 승점 24점을 쌓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3위 포항과 승점이 같아 14라운드 결과에 따라 3위로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상주는 7월 리그 네 경기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전북 현대와 대구 FC를 꺾는 등 좋은 흐름을 이었다.

강상우의 활약은 2020시즌 상주의 상승세를 뒷받침한다. 그는 최근 다섯 경기에서 2골 4도움을 기록해 다섯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작성했다. 또 2018시즌 3골 2도움을 기록했던 강상우는 이번 시즌 13경기 만에 6골 4도움을 기록해 이미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훌쩍 뛰어 넘었다.

올 시즌 강상우는 풀백이 아닌 윙포워드로 활약하는 경우가 많다. 김태완 상주 감독의 지도 아래 숨겨왔던 공격력을 마음껏 펼치는 중이다. 다음 경기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추가한다면, 리그 여섯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다.

8월 2일 강원 FC 원정을 앞두고 강상우는 "공격 포인트 욕심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하지만 감독님께서 경기를 뛰게 해주셔야 한다. 골이나 도움 등 공격 포인트를 못올리더라도, 이전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기에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각오를 보였다.



방 송 / 연 예

하차한 김호중 '사랑의 콜센타' 등장無 팬들 아쉬움↑



가수 김호중이 '사랑의 콜센타'에서 하차한 가운데, 팬들의 아쉬움이 커져가고 있다.

지난 30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 사랑의 콜센타'(이하 사랑의 콜센타)에는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정동원이 여성 보컬리스트 6인과 트로트 대결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 김호중은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일부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궁금증을 유발했다.

이는 김호중은 군 문제 등의 이유로 지난 7일 녹화를 끝으로 '사랑의 콜센타'에서 하차했기 때문이다.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측은 "김호중이 마지막 녹화를 마쳤다. 군대 문제 등으로 하반기 스케줄을 확정할 수 없어 김호중을 위해 하차하기로 결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김호중 팬들은 더 이상 그를 '사랑의 콜센타'에서 볼 수 없다는 소식에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김호중을 '사랑의 콜센타'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사랑의 콜센타' 제작진은 스타뉴스에 "마지막 촬영분이 아직 방송되지 않았다"며 "8월 중 김호중이 한 번 더 등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21일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간 여러 차례 병역을 연기하며 병역기피 의혹에 시달렸던 김호중은 이번 신검 결과를 공개하며 "병무청이 내린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희석이 쏜 김구라 캐릭터 '명과 암'

"라디오스타에서 김구라는 초대 손님이 말을 할 때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 등을 돌린 채 인상을 쓰고 앉아 있다. 뭐 자신의 캐릭터이긴 하지만 참 배려 없는 자세다. 그냥 자기 캐릭터 유지하려는 행위."

7월 29일 개그맨 남희석은 김구라의 방송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무려 2년 이상 고민하고 쓴 글이라고 했다. 7월 30일에는 "라스 나갔다 밤에 자존감 무너져 나 찾아온 후배들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심"이라고 김구라를 추가 비판했다.

남희석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김구라의 방송 태도 뿐 아니라 캐릭터성에 대한 갑론을박으로도 번졌다. '무례한 언행을 예능 캐릭터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와 '문제 삼아야 하는가'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무례함' '속물주의' 여기다 시사 문제에 해박한 지적인 면모까지 더하면 김구라 캐릭터를 요약하는 키워드가 될까. 그는 방송에서 연예인, 일반인 가리지 않고 수익이 얼마인지, 유형·무형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집요하게 캐묻는다. 부모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집안 내 재력가나 유명인 존재 여부도 단골 질문이다.

궁금한데 속물 소리를 들을까 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것을 망설임 없이 묻는 김구라를 두고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한 편으로는 지나치게 무례하고 거북하다는 평가도 꾸준하다. '호불호'라는 말을 인간화하면 김구라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그를 바라보는 대중의 온도 차는 극명하다.

타인의 역린을 아무렇지 않게 건들고, 시종일관 뚱한 태도로 방송에 임하는 김구라 캐릭터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오버해서 감정을 연기하지도 않고, 입에 발린 말 할 줄도 모르는 그의 모습은 솔직함과 통쾌함이라는 말로 포장돼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김구라의 대표 프로그램 MBC '라디오스타'가 13년째 이어지면서, 그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예능 계의 메인 스트림에 진입하게 되자 김구라가 지닌 문제점은 여러 방면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못한다는 애교를 기어이 시켜 카라 강지영의 눈물을 터뜨리게 한 사건은 이미 유명하고, 김생민의 절약하는 습관에 대해 대놓고 무시한 일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까지 했다. 이 밖에도 김구라는 격투기 선수 송가연에게 정체성에 관한 민감한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해 비판을 받았다. 또 남희석이 지적한 등 돌리고 앉는 자세, 게스트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Tel. 2479-1394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삿대질을 하는 방송 태도 등은 여러 번 논란이 됐다.

그런 김구라에게 대선배 이경규는 "사적으로 나눈 대화도 방송에서 다 얘기해버려 조심해야 한다. 선후배도 없다"라고 쓴소리를 했고, 최양락 역시 "누구나 인신공격을 하면 웃는 게 당연하지만, 당하는 사람까지 웃어야 진짜 개그"라고 충고한 적 있다.

김구라는 여전히 '잘' 나간다. TV 방송이 더는 유행을 선도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다른 메인 MC들보다 앞서 발 빠르게 유튜브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그의 원맨쇼인 웹예능 '구라철'은 KBS 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독립한 후 KBS '개그콘서트' 폐지, 연예인 행사 출연료 등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구라철'은 무례하더라도 궁금한 건 모두 묻는 그의 캐릭터를 십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김구라 그 자체라는 평을 받는다.

그가 예능계에서 구축한 위치를 대체할 인물도 없어 보인다. 염세적이고 냉철한 태도는 얼핏 서장훈과 닮았지만 결이 다르다. 버럭하고 호통치는 캐릭터는 박명수와 강호동을 떠오르게 하지만, 그들이 오버스럽게 분노의 감정을 연기하는 거라면 김구라는 '정말 화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리얼하게 표정을 구긴다.

박명수의 호통과 강호동의 버럭에 웃던 이들도 김구라의 차가운 눈초리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굳어 버린다. 정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능인이 김구라 외에 흔치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김구라는 지금까지 잘 나갔고 앞으로도 아마 잘나갈 거다. 이미 공고한 캐릭터를 구축한 그에게 방송 태도 논란은 작은 타격도 주지 못할지도 모른다. 무례한 방송 태도로 비판을 받는 것보다 고유의 캐릭터를 잃어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것이 더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음을 기억해야 한다. 김구라는 과거 인터넷방송에서 일삼았던 저질 발언을 공개 사과하고 반성한 후에야 TV 방송 시청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막말해서 죄송하다고, 상처 줘서 미안하다 연신 고개를 숙였던 사람이 또 아무렇지 않게 타인을 상처입힌다. 욕설과 성희롱급 막말만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일까. 때로는 가슴에 꽂히는 비수가 육두문자보다 더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김구라는 그간 방송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노출해왔다.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빠, 공황장애에 걸리면서까지 아내 빚을 갚은 헌신적인 남편. 의도해서 만든 이미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셀링포인트는 제법 잘 먹혔다. 괴팍하고 인간미 없다는 기존 이미지를 희석하기 충분했다.

김구라는 꽤 능력 있는 예능인이고, 여러모로 대체 불가능한 인물이다. 호불호는 갈리지만 꾸준한 수요도 있다. 그렇지만 막말하는 캐릭터성과 인간미를 모두 가지려는 것은 욕심이 아닐까. 타인을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고 싶다면 적어도 좋은 사람인 척은 하면 안 된다. 누군가는 방송인 김구라와 인간 김구라를 분리해 바라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방송에서 개인사를 자주, 꾸준히 노출해온 것은 정작 김구라 자신이다. 타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정도로 독설을 날리던 사람이 좋은 아빠, 보살 남편이라는 사실은 모순적이다. 사람은 원래 입체적인 존재라고 반박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적어도 방송에서 그의 극과 극 모습을 동시에 보고 싶지는 않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원조 자부심 '미스트롯2' vs 물량공세 '트롯전국체전' 진검승부→ 트롯광풍 더 커진다

원조트로트 오디션과 블록버스터급 트로트 오디션이 정면 승부를 펼친다.

TV CHOSUN '내일은 미스트롯2'(이하 미스트롯2)와 KBS2 '트롯전국체전'이 올 하반기 방송을 준비하며 불꽃튀는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HANA TOUR

☆ 세계 전 지역 항공권 – 멕시코 직항 / 한국 출발 / 과테 출발 / 전세계 출발
☆ 세계 전 지역 패키지 여행 / 단체 패키지 여행
(쿠바 / 코스타리카 / 브라질 / 페루 / 유럽 / 칸쿤
☆ 쿠루즈 여행

이희경(Edita Lee)
502) 3042 6968 / 카카오톡 ID : editaguate
email : hanatourguate@gmail.com
5 Av. 16-35 # 703 Plaza Pacifico Sur, Zona 14

가장 저렴하고 질 좋은 여행~~

'미스트롯2'는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의 시초다. 대한민국을 트로트 물결로 물들인 시작이 바로 '미스트롯'이었다. 때문에 트로트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미스트롯'으로 시작한 트로트열풍은 '미스터트롯'에 와서는 '광풍'으로 업그레이드됐고 종편채널 개국 이래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까지 했다. 원조이기 때문에 이번 '미스트롯2'의 지원자들도 역대급이다. '제2의 송가인' '제2의 임영웅'을 노리는 이들의 폭발적인 지원 열기에 결국 제작진은 오디션 일정을 앞당기며 횟수를 늘리는 초강수를 뒀다.

당초 예심 시작을 9월로 예정했지만 참가 열기에 대폭 일정을 앞당겨 28일 첫 예심 오디션을 시작했다. 제작진은 오디션 횟수도 크게 늘려 최대한 많은 인원이 '미스트롯 출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데 최종적으로 뜻을 모았다. 첫 오디션에는 급이 다른 퀄리티 지원자들이 마치 결승전을 방불케 하는 실력과 매력을 드러내 제작진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미스트롯2' 측은 차별 포인트로 "실력을 상향평준화 시킨 퀄리티와 이미 브랜드화 된 시리즈"를 강점으로 꼽고 있다. 제작진은 "1년여에 걸쳐 진행되는 심층 오디션, 다층 면접 등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옥석을 가려내고 있고 신변잡기에만 치중했던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과 달리, 참가자가 가진 '실력' 그 자체에 중점을 둔 정공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트롯전국체전'은 이제 시작이다. 때문에 대규모 물량공세로 '미스트롯'의 인기를 가져오겠다는 복안이다. '전국체전'이라는 제목처럼 지역별 예선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지역 감독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내로라하는 이들로 대거 포진시켰다. 고두심은 제주도를, 남진은 전라도, 김수희는 경기도, 주현미는 서울 그리고 김연자는 글로벌, 설운도는 경상도, 조항조는 충청도, 박상철은 강원도를 대표할 감독으로 출연을 확정했다.

서바이벌 오디션의 원조격인 '슈퍼스타K'를 보듯 지역 예선을 치룬 이들이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을 택한 '트롯전국체전'은 이미 오는 11월 방송이라고 첫 방송 일정까지 예고했다.

같은 트로트 오디션이지만 두 프로그램의 특징은 명확하다. '미스트롯2'는 이미 자리를 잡은 두터운 팬층에 남녀를 구분해 오디션을 진행하면서 '취향저격'을 노리는 콘셉트다. 물론 '트로트열풍'의 원조라는 것도 '미스트롯2'에 힘을 실어준다.

여기에 '트롯전국체전'은 지상파방송이라는 이점을 안고 과감한 물량공세로 원조에 도전하는 모양새다. 얼마나 실력있는 원석을 제대로 발견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드라마틱한 승부를 펼쳐내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다. 올 하반기 '트로트 열풍'을 이어갈 트로트 오디션은 어떤 프로그램이 될까.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보검X박소담 주연 '청춘기록', 넷플릭스 통해 전 세계 공개

팬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는 2020년 하반기 기대작 '청춘기록'이 세계적인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

tvN 새 월화드라마 '청춘기록'은 올 하반기 국내 tvN 첫 방송 후 넷플릭스를 통해 아시아 및 영어권 지역을 시작으로 전 세계 190여 개국에 공개된다.

'청춘기록'은 현실의 벽에 절망하지 않고 꿈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춘들의 성장기록을 그리는 드라마다. 꿈꾸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의 청춘, 저마다의 방식으로 꿈을 향해 직진하는 이들의 뜨거운 기록이 설렘과 공감을 선사





할 작품이다.

배우 박보검과 박소담이 주연을 맡았으며, '비밀의 숲'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을 연출한 안길호 감독과 '닥터스' '사랑의 온도' 등을 쓴 하명희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탄탄한 연기력과 독보적인 스타성을 지닌 배우들과 웰메이드 제작진의 만남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방영 전부터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공개를 결정지으면서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과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의 기대치를 증명해내며 새로운 '핫' 콘텐츠 탄생을 예감케 한다.

지난해 작품성과 대중성을 다잡은 히트작 '동백꽃 필 무렵'에 이어 '청춘기록'까지 넷플릭스 공개가 확정되면서 팬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들이 잇달아 글로벌 OTT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 시장에서도 트렌드를 이끄는 리딩 컴퍼니 반열에 한발 다가섰다. 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동백꽃 필 무렵'에 이은 '청춘기록'의 넷플릭스 방영을 계기로 넷플릭스 같은 대형 OTT 기업과 더욱 견고한 레퍼런스를 축적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다양한 국내외 OTT 기업과 다각도로 접촉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창출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넘어 해외까지 '싹쓰리 신드롬' 美포함 45개국 차트 진입

2020년 여름 싹쓰리 신드롬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글로벌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7월 30일 두 번째 음악방송 무대인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싹쓰리는 '그 여름을 틀어줘' 무대를 최초 공개한데 이어 데뷔곡 '다시 여기 바닷가'로 데뷔 6일만에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이에 싹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며 전 출연자들과 앵콜 무대를 꾸몄다.

지난 25일 첫 데뷔 무대에 오른 싹쓰리의 음원은 국내 음원사이트를 넘어 홍콩, 타이완, 마카오,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과 미국까지 해외 45개국 차트에 진입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홍콩에서는 차트 1위까지 기록했다. 또한 네이버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하는 스마트미디어렙(SMR)의 분석에 따르면 '놀면 뭐하니?'의 혼성그룹 싹쓰리 특집 방송 클립 누적 조회 수는 무려 1억 300만 회(5월 9일부터 7월 28일까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내에 오픈 된 싹쓰리 피지컬 앨범 예약 판매에서 1차 완판을 기록하고, 컬래버레이션으로 나온 굿즈 상품들도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싹쓰리의 데뷔 무대였던 MBC '쇼! 음악중심'은 올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이에 싹쓰리의 다양한 앨범 활동을 응원하는 팬들의 요청도 쇄도하고 있어 2020년 여름을 강타한 싹쓰리 열풍은 더욱

MEGA IPTV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방송을 ...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시청가능!
서비스 및 문의전화 : 사영이영-사영삼영

1. 한국에서 방송중인 실시간 50개 채널을 동시에 시청
2. 실시간 방송 외 영화, 드라마, 예능/오락,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유아/어린이 등 원하는 시간에 시청가능
3. 기타 타사 IPTV의 고정관념 버퍼링 및 끈김현상 완벽 보완
4. 타사의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시청하지 못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저희 가 방문 후 MEGA IPTV로 바꿔 드리고 동시에 남은 잔여일을 보장 가능
5. 다양한 시청료 패키지
   6개월 / 12개월 + 설치비 무료!! 및 환불보장!!
6. 차별화를 둔 신속한 A/S



업무시간: 8:00 ~ 8:00 (업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요일 및 방문시간 조정가능)
(전화연결 안될시 문자 및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뜨거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8월 1일 오후 6시에는 싹쓰리 유두래곤(유재석), 린다G(이효리), 비룡(비, 정지훈)의 개인곡과 히든 트랙 음원이 공개되며 이어 오후 6시 30분에는 MBC '놀면 뭐하니?' (연출 김태호 김윤집 장우성 왕종석)에서 싹쓰리의 첫 데뷔 무대였던 '쇼! 음악중심' 초밀착 비하인드 현장이 공개된다.

연예인의 '라이브 방송'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연예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이 불안하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 특성상 편집이 불가능해 늘 아슬아슬한 상황을 안고 있다.

최근 MBC '놀면 뭐하니'를 통해 혼성그룹 싹쓰리로 활동하고 있는 이효리도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시대에 윤아와 노래방을 방문하고, 이를 라이브로 방송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의 하차 요구까지 받았다. 이효리는 이후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에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룹 인피니트 멤버 남우현이 진행한 SNS 라이브 방송에서는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 이중엽 대표의 부적절한 행동이 문제가 됐다. 영상 속 술자리에서 남우현의 모자를 내리치고, 외모를 평가하는 이 대표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이 대표는 욕설을 내뱉는 것을 제지하는 남우현에게 더 심한 욕설을 던졌고, 남우현이 급히 방송을 마무리 했다. 이에 팬들은 "소속 연예인에게 비속어와 폭력을 쓰는 건 예의가 아니"라며 이 대표의 경솔한 태도에 분노했다. 결국 이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다.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의 경솔한 언행이 논란이 된 건 오래된 일이다. 일반 게시물처럼 삭제나 편집이 불가능하고, 연예인의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쉽게, 그리고 자주 발생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기획사에서는 소속 연예인들의 SNS 생방송 자제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SNS를 통한 생방송이 이어지고 있는 건 단 한 가지 이유, '소통' 때문이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위험성이 높지만 팬들의 요청이 이어지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포기할 수 없다. 팬들의 입장에서 실시간으로 연예인과 소통할 수 있고, 궁금증에 대한 피드백이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것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혹시모를 '실수'를 막기 위해 기획사들은 각종 방안들을 내세우기도 한다. 연예인의 SNS 활동에 알람 설정을 해두고 게시물이 올라올 때마다 소속사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이를 모니터링 하거나, 애초에 기획사의 통제하에 대본을 만들어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하는 식이다.

하지만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을 100% 통제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홍보에 도움이 되고, 팬과 연예인의 관계를 견고히 해주는 것으로 라이브 방송만 한 것이 없다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하루 24시간 내내 소속사에서 연예인을 통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개인적으로 SNS 생방송을 하는 경우는 뒤늦게 확인하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연예인의 요청에 따라, 혹은 필요에 따라 생방송을 관리해줄 순 있지만 지나친 통제는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조차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기할 수 없는 소통의 창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가 만만하니? 향수 뿌리지마, 후유증이 n년전 노래의 소환

"요즘 많은 분들이 난리예요. 이상해요. 옛날에는 안 봐줬는데 지금 9명이 같이 활동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9인조 그룹 제국의 아이들 출신 광희가 29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8년 전 발표한 곡 '후유증'이 최근 역주행하는 것에 대해 한 말이다. 광희는 반짝 인기에 그칠 것이라고 농담조로 말하긴 했지만, 제국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광희를 비롯해 지금은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임시완, 박형식, 김동준 등이 속한 제국의 아이들은 2010년 데뷔한 이후 팀 활동 성적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 '마젤토브(Mazeltov)' '후유증' 등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활동 영상에는 "후유증도 '깡'처럼 역주행 할 것 같다. 제목 그대로 이거 보면 후유증 장난 아님"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 그룹" "1일 1후유증" 등의 댓글이 달려 웃음을 안긴다.

이는 '밈(Meme) 현상'으로, 특정 콘텐츠를 대중이 따라 하고 놀이로 즐기는 온라인 문화다. 많은 네티즌은 당시 활동 영상을 찾아 댓글을 달기도 하고, 직접 춤을 따라하며 즐기고 있다. 유튜브를 시작으로 각종 SNS 등에서 화제 되면서 가수와 곡을 재평가하기도 한다.

네티즌들만의 놀잇거리가 아니다. 당사자인 멤버들까지 직접 이를 언급하며 즐기고, 방송에서도 회자되기도 한다. 멤버 임시완, 김동준, 하민우 등은 유튜브를 통해 자신들의 영상에 달린 댓글을 읽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준은 고정 출연 중인 KBS2 '맛남의 광장'에서 '후유증' 라이브를 요청받고 무대를 재연하기도 했다.

이런 '밈 현상'은 SBS 유튜브 채널 '스브스 뉴스-문명특급' (이하 '문명특급')의 '숨듣명(숨어 듣는 명곡)' 특집에서 추억의 곡들을 되짚어 보면서 본격화됐다. 현재 신드롬급 인기를 끌고 있는 비의 '깡'과 유키스 '만만하니' (2009), '시끄러' (2010), 틴탑 '향수 뿌리지마' (2011), '미치겠어' (2012) 등 역시 '문명특급'에서 '숨듣명'으로 꼽혔다. 그땐 몰랐지만 지금 들으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면 어딘가 유치한 가사 때문에 당당하게 들을 수 없지만, 중독성 있는 멜로디 때문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틴탑의 니엘, 유키스 수현 등은 직접 '문명특급'에 출연해 곡의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틴탑, 유키스를 몰랐던 대중들까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들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수현은 방송 출연 이후 제26회 드림콘서트 CONNECT:D 레드카펫 MC를 맡았고, 보통 가수들이 신보 발매 기념으로 하는 인터뷰도 진행했다. 아울러 '수현OPPA'라는 별명도 생겨났고, 함께 출연하지 않았던 멤버 알렉산더는 뜬금없이 "여우같은 Girl"이라는 유행어를 얻게 됐다. 이들은 이런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과거 영상 찾아보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5년 전 그룹 2PM 준호의 '우리집' 직캠도 화제된 바 있다. 당시에는 짧은 활동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직캠이 관심받으면서 준호는 치명적인 춤사위로 '어른 섹시' 대명사로 떠올랐다. 이에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비투비 서은광, 아스트로 산하 문빈, SF9 영빈, 원어스, 베리베리 등이 커버 및 챌린지에 동참했다.

'밈 현상'의 가장 큰 수혜자는 가수 겸 배우 비다. 앞서 비는 3년 전 노래 '깡'으로 다시 주목을 받으며 전천후 활약을 하고 있다. 조롱성 댓글이 기반이 돼 유머로 소비되기 시작했지만, 당사자 또한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1일 1깡'이라는 이름의 놀이로 승화됐다. 챌린지는 물론이고, 힙합 레이블 하이어뮤직(H1GHR MUSIC)의 박재범, 김하온, pH-1, 식케이가 힙합 버전으로 리믹스 곡을 발표해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했다. '깡' 밈 현상과 맞물리면서 비는 MBC '놀면 뭐하니?' 혼성 그룹 싹쓰리 프로젝트까지 참여하게 됐고, 현재는 또 다른 신드롬을 낳고 있는 중이다.

'밈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면서 생긴 온라인 문화 확장 효과로 관측된다.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갈증이 발생했고, 수년 전 콘텐츠까지 뻗게 됐다. 또 어떤 가수들이 '밈 현상'의 수혜자가 될지, 과연 파급 효과는 어디까지 미칠지 가요계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린 다 뷰 티

예약제 서비스

♣ 바디케어

힐링 전신(부분) 통증, 순환관리
힐링 전신 피로 쫙 마사지
출산 전,후 스트레스 쫙 마사지

♣ 스킨케어

린다 촉촉 일반케어
진다 톡톡 비타민 케어
린단 탱탱 카복시+앰플케어
린다 모공 쏙 스켈링 케어
린다 여드름 케어
린다 반짝 반짝 효과짱 필링

♣ 린다뷰티헤어

손상모 회복 프로그램
(찰랑 찰랑 머릿결)
모낭충 두피관리 프로그램
(탈모, 비듬, 두피가려움)
셋팅, 매직펌, 볼륨 매직펌, 일반펌
(기분 전환 헤어변신)
메니큐어 (갈라진 모발 회복)
염색 (화사한 얼굴)

상담예약 : 삼공삼사 이일삼일 / 샤인코리아 건물 안 위치
오전 8:30~오후 6:00 영업 / 매주 화요일 정기휴무 (매월 첫째 주 화, 수 휴무)

교 민 장 터

교민장터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과테말라 거주 한국 교민들을 위한 무료 장터 입니다

Obelisco 옆 Z.13 새 APT
111m2, 방3 화장실 2 11층
Rent : $1,000 (관리비 포함)
창고포함 / 5545-5764

[아이롱 다이 구합니다]
[판매하실분 연락주세요]
5323-9842

HONDA PILOT / 2009년
95,000마일 / DARK GREY
Q55,000 -네고가능(급매)
Tel:3090-7000

내수 공장 인수하실 분
나랑호 가리따 안전
Z.1 pueblito 1층 가게 양도
3016-8282

소나 1, 3 avenida 잡화가게
싸게 양도합니다
5576-1316

'18 Mercedez Benz GLC250
15,500kms - $40,000
2017 Fiat 500, 6,500kms
- Q80,000/ Tel:5805-3356

(중고)캐논 EOS M50 정품
팝니다. 렌즈:15~45mm,
22mm / SD 카드 : 128GB
Q5500 y $715 / 5819-8100

냉동고 팝니다 가정용소형
Q1000
tel:3025-7591

kia rio 2013
agencia/87,441km
Q50,000 네고가능
3041-7737

교복 드립니다
INTER AMERICANO 교복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중학생이상 5017-7217

헬스 자전거
판매 합니다.

4444-7914/5671-1865

혼다 pilot 2016년식
Q285,000 네고가능
3090-0101

Santa María de las Charcas
세 놉니다.$750
(관리비 포함) 30평 방 3개,
1년 새아파트 5819-8100

ZONA 7 LAS DALIS 주택
세 놉니다
Sector 3 casa 11
tel:5312-1159

기아 쏘렌토 2011년식
주행거리 80724km
그리스 7만 껫짤
전화번호 30436864

소나 우노 쁘에블리또 1층

가게 양도합니다.

삼공일육-팔이팔이

영업용전기밥솥 30인용 220v,
가정용전기밥솥 10인용 220v,
유모차 절충형, 여아용 카시트
Tel:3025-7591

HONDA CR-V(2017년식)
아헨시아 20,000KM Q160,000
3384-5503

식품생산 및 배달전문 식품점
양도합니다. 위치 최상
(개인사정으로 급매)
4739-6294

Balcones de Las Charcas
Zona 11, APT 방3, 화장실2
가구 가전포함 $700 (관리비
별도) 연락처 32171067

구 인 / 구 직

C-SITE 채용공고

모집부분 : 영업

경력직 사원

16페이지 참조

(주)태평양 물류

채용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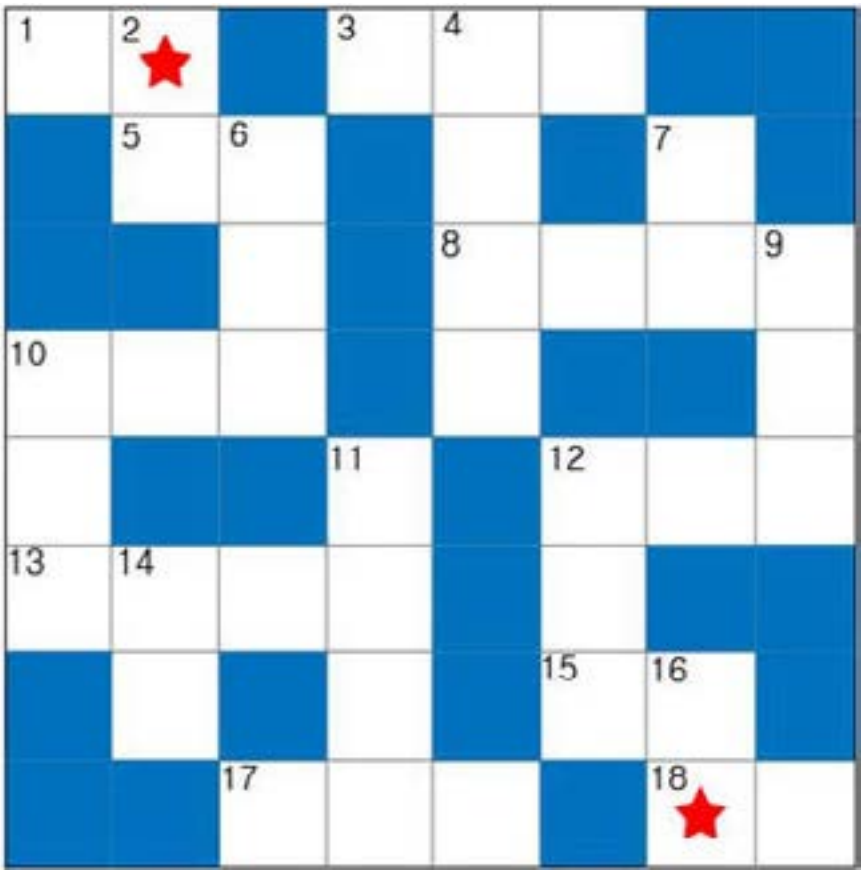
수출입 신입/경력 0명

30페이지 참조

교민장터에 기재되는
내용의 사진을 첨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Tel. 2479-1394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날 말 퀴 즈



일모◯◯

지난 답



■ 가로열쇠

1.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빎
3.전직 대통령. DJ
5.처리하여 치움
8.삼국을 통일한 676년 이후의 신라
10.표를 파는 곳
12.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때 치게 하던 북
13.변방 늙은이의 말
15.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17.긴급 비상용으로 쓰는 직통 전화
18.수학에서 원둘레

■ 세로열쇠

2.이르는 곳
4.큰 소리로 몹시 슬프게 곡을 함
6.조의를 표하도록 향을 피우게끔 만들어 놓은 곳
7.굳게 믿고 있는 바
9.악보에서, 아주 느리게 연주하라는 말
10.옷을 입은 맵시
11. '아줌마 '와 '신데렐라' 의 합성어
12.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신성한 나무
14.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만든 벽
16.조선 화가 김홍도의 호

드 래 곤 라 자

이 영 도

"그래서 넌 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진 모르겠지만, 난 핸드레이크처럼 인간입니다. 따라서 페어리인 당신보다는 그를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와 나 사이엔 300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다레니안은 잠자코 날 바라보았다. 난 고개를 돌려 우울하게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풀죽어있는 모습들을 보자니 가슴이 아파왔다. 그리고 카알은 일행들이 부르는 소리도 무시하면서 여전히 수면만을 바라본 채 앉아 있었다.

난 카알쪽으로 걸어갔다.

옆에선 두 팔을 수평으로 든 채 허공에 떠서 빙글빙글 돌고있던 제레인트가 그대로 빙글빙글 돌면서 따라왔다. 윽. 잠자리 같군. 아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군.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다니는 생물은 전혀 없으니.

난 카알의 얼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모닥불을 등지고 앉은 카알의 얼굴은 침침한 어둠으로 젖어있었다. 그는 다리를 감싸안은 채 구부정하게 앉아서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수면처럼 가늘게 떠져 있었고 호수에서 불어오는 싸늘한 바람은 그의 머릿결을 떠오르게 만들고 있었다. 추위 때문에 시퍼렇게 질린 그의 얼굴에서 그의 입술만이 움직이며 무슨 말인지모를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제레인트가 내 옆으로 내려왔다. 제레인트는 카알의 입술을 주의깊게 바라보더니 그입술 모양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다.

"오… 우이오. 아에…안?"

난 착찹한 심정으로 말했다.

"돌려주시오. 다레니안."

"아, 맞아. 그렇군. 아라이…이? 부영이 아라이으테이?"

"살아있지? 분명히 살아있을테지?"

그 때 머리 위쪽으로 다레니안이 천천히 날아왔다. 난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당신은 모르시겠어요?"

"뭐라고?"

"지금 카알의 말, 그의 마음, 짐작할 수 없냐고요!"

다레니안은 여전히 허공에 뜬 채 카알의 얼굴과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는 너희들을 그리워하고, 또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같구나."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레니안은 다시 카알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와 제레인트, 그리고 요정의 여왕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카알은 전혀 느끼지 못한채 앉아서는 대답없는 수면만을 향해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질문을 날려보내고 있었다. 다레니안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잘 아시는군요. 당신도 짐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잖아요?"

다레니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어떤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변화?"

"우스운 말이지만, 카알에 대한 동정심이, 그리고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드 래 곤 라 자 이 영 도

우릴 돌려보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느냐고요?"

다레니안의 얼굴을 본 순간 난 그만 고함을 지르고 싶어졌다. 다레니안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은 것이다. 그래. 이게 페어리다. 이젠 확실해지는군.

"너의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구나. 그는 허공을 향해 말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런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지?"

이거였어. 난 대답하지 않고 다만 속으로 외쳤다. 바로 이거였어. 그래. 그녀는 핸드레이크의 정열에 동참하지 못해서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 아니, 이건 이해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야. 단지 그 뜨거운 마음을 느끼고,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사소한 공명을 그녀는 하지 못했을 거야. 오로지 머리로서만 핸드레이크를 이해하려고 했고, 그래서 끝끝내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방해한 것이겠지.

"그래도 핸드레이크는… 이해해주려고 애쓰는 모습만으로 당신을 사랑했겠지요."

제레인트가 무의식중으로 꺼낸 말은 다레니안으로 하여금 한참동안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난 제레인트를 바라보았고, 제레인트는 허공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오른손등으로 턱을 받친 채 말했다.

"아냐. 그는 원래 만물을 사랑했고, 당신 또한 사랑했겠지. 큰 사랑이었을 거야."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맞아. 스스로를 단수로 생각할 수 없는 남자였지. 소유욕과 별 차이없는 그런 사랑은 하지 않았겠지. 후, 후후, 하하하! 이건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다레니안! 그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니."

"무슨말을 하는 거야!"

제레인트는 즐거운 얼굴로 다레니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핸드레이크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뭐?"

"핸드레이크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간곡하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혹은 당신에게 무엇이 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변화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다레니안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레인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한 번도 없었겠지요. 우리들이 보통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파괴입니다. 상대에 대한 적극적 파괴행위지요. 그 점에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린 불길일지도 몰라요."

"파괴라고?"

"그래요. 상대를 원래의 모습으로 있게 만들지를 못하지요. 어떻게든 상대로 하여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려 애씁니다. 상대가 스스로의 즐거움, 스스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음으로써 즐겁고, 나와 함께 함으로써 기쁘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알고있는 자신만의 즐거움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 점에선 사랑과 증오는 거의 같아요. 어쨌든,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니까요."

"난, 난 네 말을…"

제레인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뭐?"

제레인트는 엄숙하게 말했다.

"짝사랑이지요."

감정을 적절히 드러내는 법



화를 경험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다.
우리는 종종 불같은 격노와 얼음 같은 침묵
사이를 오가곤 하는데, 둘 중 어느 하나도
건설적인 태도는 아니다. 우리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감정을
적절히 드러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 메리 파이퍼의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 중에서 -

*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불같을 때도 있고 얼음같을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바닥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 표현의 기복이 너무 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오를 때는 하늘을 찌르고 떨어질 때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감정의 굴곡은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합니다.
감정을 적절히 드러내는 법.
인생의 큰 숙제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하나 엔지니어링

문의 : 오오이팔 - 이사일삼 / E-mail : hanaeng2004@gmail.com

전기 소방 설비 공사 , 2층 증설 및 인테리어

보일러 설비 배관, 에어 설비 배관

콤퓨레샤 정기 정검(가장 저렴한 소각 보일러)

오늘의 운세



다리가 아파서 앉았더니 그곳이 목적지. 쉽게 문제가 해결된다. 72년생 늦잠은 리듬을 깬다. 찬 음식을 피하고 휴식하면 최상. 60년생 가족에게 마음을 열어라, 함께 해결할 문제가 생긴다. 48년생 자연과 가까운 생활이 활력을 준다. 야외로 나가라.



마음은 가볍지만 몸이 무겁다. 집에서 휴식하며 건강을 유지하라. 73년생 남쪽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 술자리는 조심해서 참석하라. 61년생 작은 일에 기쁨을 맛보는 경우가 생긴다. 이웃이 방문한다. 49년생 상갓집에서 오래 머무는 것은 좋지 않다. 집에서 가족과 보내라.



산을 넘으니 또 산이 보인다. 성실과 인내로 밀고 나가야 한다. 74년생 할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니 기쁘다. 62년생 부모나 윗사람에게 경사 있으니 축하금이 필요하다. 음식 조심. 50년생 소화기에 신경 써야 하고, 애정 문제로 고민할 수 있으니 조심.



현명한 자는 결단을 내려 손을 때니 훗날의 재앙을 피한다. 75년생 매번 내게만 밥값을 내게 하는 상대라면 과감히 끊어라. 68년생 친한 사람이 간사함을 숨기고 자기 이익만 챙겨 간다. 51년생 동업하자고 하는 사람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주의하라.



진퇴양난이니 나아가면 곤란하고 거절하면 주위에서 눈총을 준다. 76년생 마음이 안정 안 되니 차라리 신나게 놀자. 그게 낫다. 64년생 연인과 나들이 가니 화창한 청춘일세. 기분 삼삼. 52년생 보증서지 말 것. 훗날에 반드시 후회하니 목욕재계하고 냉철해 지자.



윗사람의 신용을 얻는 것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진심이다. 77년생 직접 만든 선물을 생각해 보라. 통할 것이다. 65년생 진심으로 일하니 모두가 공로를 인정한다. 그러나 보수는 적을 듯. 53년생 승산 있는 싸움이다. 젖먹던 힘까지 내어 열심히 해보라.



작은 일도 철저하게 계산된 뒤에 실행에 옮김. 굉장히 철저한 사람임. 78년생 뜻하지 않은 재물과 이성 친구가 생긴다. 있을 때 저축하는 지혜 필요하다. 66년생 서로의 이권 때문에 상대방과 법률적 문제로 만난다. 좋게 풀림. 54년생 승진운 있고, 사업 확장의 기회가 주어진다. 단 겸손의 미덕 발휘.



운동 경기장에 가서 마음껏 소리를 질러 스트레스 해소가 좋다. 79년생 연구, 탐구,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사람은 한 줄기 빛이 보인다. 67년생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 진행 중인 자료를 3중으로 보관하라. 55년생 오랜 세월 동안 인내력 하나로 살아온 보람이 결실을 맺는다.



호주머니에 동전 몇 개 달랑. 집에 돌아갈 차비 걱정이 앞선다. 80년생 밖으로만 나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68년생 주먹 다툼으로 경찰서 갈 일이 생길 것 같다. 대인 관계 조심. 56년생 돈 쓸일 많은데 돈 생길 곳은 없다. 계곡 지나면 평지. 조금 참아라.



성급하게 직장을 그만두면 사서 고생하는 길이니 신중하여라. 미혼자는 이성 문제로 구설에 오르니 양다리 걸치지 마라. 69년생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데 아직 시기상조이니 재고하라. 57년생 고독한 생활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끝나고 새생활 시작된다. 45년생 부부가 해외 여행을 간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마음으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본다. 70년생 해외 여행을 가려 하는데 비자 인준이 지체된다. 58년생 떠난 사람에게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과 시작하라. 46년생 동업자와 결별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두 마리 토끼를 좇다가 둘다 놓치니 하나만 택하는 것이 좋다. 미혼남 두 여자 사이에 갈등하다 둘다 놓치니 하나에만 열중하라. 59년생 금전 거래 문제로 동업자와 다투게 되니 주의하라. 47년생 금전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니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본다.

스페인어 한 마디

tener un buen expediente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

Para entrar en esa escuela necesitas tener un expediente académico brillante.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tener una asignatura pendiente
아직 최종 합격하지 않은 과목이 하나 있다

Tengo una asignatura pendiente de aprobar para septiembre.

9월에 재시험을 봐야 하는 최종 합격하지 않은 과목이 하나 남아있다.

유 머

해군함장과 일병의 대화

군함 한척이 달도 없는 어두운 밤에 항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면에 불빛이 보이는 것이었다. 군함 정면에 나타난 불빛을 보고 함장은 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방향을 서쪽으로 10도 돌려라!"

상대가 답신을 보냈다. "당신이 방향을 동쪽으로 10도 돌려라!"

화가 난 함장은 다시 신호를 보냈다.
"나는 해군함장이다. 네가 방향을 돌려라!"

상대가 다시 신호를 보내왔다. "나는 해군 일병이다. 그쪽에서 방향을 돌려라!"

화가 끝까지 난 해군함장은 최후의 신호를 보냈다.
"이 배는 전함이다. 절대 진로를 바꿀 수 없다!"

그러자 상대도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여기는 등대다. 니 맘대로 해봐라!"

손가락들의 자랑

손가락들이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다.

엄지부터 순서대로

엄지: 난 여기서 힘이 제일 세!!

검지: 난 여기서 하는일이 제일 많아!!

중지: 난 여기서 제일 키가 커!!

약지: 내가 없으면 결혼반지 못껴!!

새끼: ....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특출나게 잘난게 없는지라....

한참을 생각하던 새끼 손가락.

"니들, 그런데 나 없으면 병신이여..."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한과정보 홈페이지 개설

한과정보가 구독자 여러분께 보다 편리하게 과테정보를 전달하고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신문으로 구독하기 힘드시거나, 핸드폰으로 보기 어려우신 교민 여러분께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보다 편리하게 신문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www.hangua.net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한과정보가 교민여러분의 눈과 귀, 정보가 되어 드릴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문을 이메일과 **Whatsapp**을 통해서도 매일 아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핸드폰에서 **Whatsapp**을 눌러 주시면 단톡방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전화문의를 원하실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전화 2479-1394 또는 e-mail : jiny74@gmail.com

INK PAIS
잉크빠이스

잉크빠이스
복사기 임대 및
판매 개시!!



◆ 교민 여러분을 위한 칼라 잉크 프린터기 구입시 TIP!

프린터기 구입 모델은 엡손 L300 이상 (캐논보다 포멧 가격이 저렴하고 까르뚜쵸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구입시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 안에 잉크병은 절대 버리시면 안됩니다.)

또한 자사 잉크는 타업체보다 엄청 저렴합니다.

▶ 타업체 70ml Q99 ▶ 잉크빠이스 325 ml Q100



CCTV 판매 실시



컴퓨터 조립 및 프로그램 판매

- 문의전화 -
2439-3692
5529-4481



그랬더니
이런 체형이 되었다







오십견 비슷한게
온것 같았다





핸드폰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



Tel. 2479-1394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만화를 보는 여러분
더 나빠지기 전에 스트레칭을 생활화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논리 퍼즐 스도쿠

난 이 도 : 쉬운 단계

8	5			1	6		3	
3					2		6	9
		9	3				2	
2		7			5		4	
6				4	7			5
	1		2			9		6
	3				4	6		
9	2		8					7
	4		5	6			1	2

난 이 도 : 어려운 단계

				6	4			3
		7	1					
5						8		9
4		8					3	
		1				2		
	2					1		7
2		6						4
					8	6		
9			6	5				

스도쿠는 가로세로 각 9칸씩 모두 81칸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9*9 상자)에 알맞은 규칙에 따라 숫자를 배열하는 퍼즐 게임입니다.
스도쿠를 푸는 기본 법칙은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①각각의 가로줄에 1~9까지의 숫자를 겹치지 않게 배열한다.
②각각의 세로줄에 1~9까지의 숫자를 겹치지 않게 배열한다.
③동시에 전체 큰 정사각형 안의 가로세로 3칸씩 모두 9칸으로 이루어진 작은 정사각형3*3 상자) 안에도 1~9 까지의 숫자를 겹치지 않게 배열한다.

오늘 스도쿠 정답

쉬운단계 정답

2	1	3	9	6	5	8	4	7
7	5	4	1	3	8	9	2	6
8	6	9	4	2	7	5	3	1
6	7	9	3	8	2	4	1	5
5	8	2	7	4	1	3	9	6
3	4	1	5	9	6	7	8	2
1	2	5	8	7	3	6	9	4
9	6	8	2	5	4	1	7	3
4	3	7	6	1	9	2	5	8

어려운 단계 정답

1	8	7	2	5	6	3	4	9
2	9	6	8	3	4	5	1	7
4	5	3	1	7	9	6	8	2
7	4	1	3	8	5	9	2	6
8	6	2	9	4	7	1	5	3
5	3	9	6	1	2	8	7	4
9	1	8	7	2	3	4	6	5
6	2	4	5	9	1	7	3	8
3	7	5	4	6	8	2	9	1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보 물 창 고





표고버섯분말. 멸치분말. 다시마 분말가루
삼립 완듀완듀빵. 치즈케익. 단팥크림빵. 모찌
호빵. 동물모양 이쇱찐빵. 우리밀치즈볼
땡글치즈 감자볼. 바삭모짜 치즈감자볼
선지해장국. 순살족발. 훈제돼지막창. 소양대창.
즉석소곱창구이.
소금구이 자반고등어. 삼치. 임연수. 열빙어. 굴비
찰순대. 매운찰순대.
비비고 순댓국. 비비고 육개장, 비비고 알탕
비비고 쇠고기장터국밥
호박꿀맛나. 백옥콘. 추억의 꽈베기
한입떡갈비. 햄버거패티. 무뼈닭발
안주야~직화곱창. 모듬곱창. 곱창전골



참닭닭갈비. 손질된 영덕 청어 과메기. 알탕용알(소포장). 명태알포. 직화육포.
얇은피 고기만두. 개성얇은피 김치만두. 개성얇은피 새우만두. 감자물만두. 고향만두.
비비고한섬만두. 비비고찰보리감자만두. 백설깻잎고추군만두. 납작군만두.
컵반 불닭마요덮밥, 컵반 철판제육덮밥, 컵반 직화볶음짜장덮밥, 컵반 김치날치알밥.
무말랭이무침. 마늘쫑무침. 간장고추. 오이지. 양념깻잎. 매실간장깻잎. 된장깻잎. 콩자반.
고들빼기. 더덕무침. 땅콩조림. 어리굴젓. 낙지젓. 오징어젓. 꼴뚜기젓. 조개젓. 새우젓



7월 행사 세일

임가네고추가루 김치용 Q150
한국내수용쵸코파이 3곽 Q100

배달 직통 번호 5318-0169 카톡 주문 가능

배달 직통 전화번호 : 2473-8255, 2473-8222, 5318-0169

Anillo Periferico 22-29 Z.11 C.C San Jorge Local 14

(컴퓨터 판매 및 수리. 한글자판 및 스티커. 단체 김 주문)

MEGA MART

로데오

한국택배전문 2433
통합배달전문 9015



NEW

7월 17일 한국 신상품 + 7월 24일 한국 신상품

7월 27일 맛있는 햅쌀과 광천김 재입하

나이스 한국택배와 통합배달이 가능한 로데오 마켓은 최고의 서비스와
정말 빠른 물건 입고로 고테말리 고민들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배민이 절대 부럽지 않은 고테말리
로데오 통합배달망
시내 배달은 100원만 시켜도 갑니다요^^



TALK

하나씩 말해드리기 숨찰만큼 들어오는 신상품류
카톡으로 이미지 신청하세요

맛있는 분식 주말마다 배달 시키세요





미너노랑배추 , 자작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입고됩니다

다음 택배 마감은 8월 10일 입니다

남보다 빠른 배달로 보답하겠습니다

본점
2433-9015
2호점
2221-5364
3호점
2367-0137

통합협력업체

아람정육점 4514-0802
마장동 3258-8320
밀베이커리 4545-4504
순풍식당 2508-5635
향이 4576-5786
진미식당 5550-1317
본가 2445-6050

통합 배달 전문

한국 택배 전문